

김안덕기념관 소식지 제2호

恩光衍世

2017

12월

이 광 연 세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입장 마감 - 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무료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9시까지
연장개방 무료개방(홈페이지 참조. 문의)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대여료 산정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오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좌석 10, 28, 38, 70, 90, 92, 100, 200,

1001-001(심야), 1001-002(심야),

1001-003(심야), 1001-004(심야), 1008(심야)

일반 2, 3, 9, 30, 43, 51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



은혜의 빛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역시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고자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김만덕의 선행이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으로 승화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에, 저희 기념관이 다리가 되어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광연세’ 소식지 제2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제38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과 정조, 제주문화답사-제주목관아, 김만덕 선양을 위한 (사)김만덕기념사업회와 김만덕기념관의 활동,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공동대표와 대담, 자녀와 읽는 김만덕스토리 ‘그림책 만덕과 푸른향아리’, 기념관 주요행사인 기획전·나눔큰잔치·나눔교육·나눔특강·나눔콘서트 등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한 다양한 행사들로 꾸몄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모인 쌀과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나누고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답하고자 ‘어려운 이를 품은 만덕정신’에 담았습니다. 늘 김만덕기념관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고두심,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대표단과 한 해동안 기념관에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며, 김만덕기념관이 문화에 술과 교육, 나눔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만덕기념관 관장 김 상 훈

제호설명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措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은광연세(恩光衍世)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 때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 준 편액 문구입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제호입니다.

표지설명

만덕제는 김만덕의 기일(음력 10월 22일)을 포함하는 주간에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봉행되고 있다.

여성 제관들에 의해 봉행되는 205주기 만덕제는 길트기를 시작으로 원희룡 제주지사 내외의 헌화와 분향, 제례 봉행, 분향 순서로 진행되었다. 만덕상 시상식도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발행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발행인 김만덕기념관 관장 김상훈

발행일 2017년 12월 22일 제2호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백성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더구나 재난을 구제하고 흉년을 돌보는 것은 제때에 미치지 못하기라도 할 듯이 더욱더 다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백성의 목숨이 달린 것이니,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된다. 오늘 한 가지 정사를 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행하여, 곤경에 빠진 나의 백성들을 편안한 자리로 옮긴 뒤라야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진다.”

일득록 (日得錄) 조선 정조의 어록.18권. 활자본. 1814년(순조 14)에 간행된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弘齋全書> 권161~178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직제학 정지검(鄭志儉)이 국왕의 언행을 기주(記注)의 법에 따라 기록하여 후일 반성의 자료로 삼자고 건의함으로써 편록되었다.





1795년 정조대왕화산능행차가 재현되고 있는 수원 화성

1789년부터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지금의 화성시)으로 이장하여 현릉원을 조성하고 해마다 1월이나 2월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현릉원을 참배하였다. 능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억울한 일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격쟁의 기회가 있어 온 나라의 백성이 서울에서 화성까지 연도에 모여들었다. 정조의 능행길에서는 지방의 인재들을 수시로 발탁하여 등용하는 별시를 실시하고, 임금께 소원을 청할 수 있어서 지방의 지역발전과 지방민의 사기진작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길러 진상된 백말은 정조를 태우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였지만 정작 제주도민은 출륙금지령에 묶여있어 육지에서 전해오는 소식만 접할 뿐 구경할 수도 별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김만덕이 소원이 무엇이었냐는 정조의 물음에 한양의 궁궐과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소원은 소외 받는 제주도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같은 백성으로 대우받기를 원한 것은 아닐까?

2017년 가을, 선정을 배운 정조의 정조능행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한 의인 김만덕은 제주에서 만덕제를 봉행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살며 개혁과 도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 정조와 김만덕을 수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기리고 있다.



차례 CONTENTS

2017. 12 제2호

발간사 | 1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

서시 | 2

정조어록 - 일성록

커버스토리 | 6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과 정조

제주문화 답사 | 23

제주목관아

김만덕 선양을 위한 활동 | 29

김만덕 나눔쌀

김만덕 사랑으로 세계를 품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꿈

베트남 만덕학교

만덕심판 | 42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공동대표

자녀와 읽는 김만덕스토리 | 47

만덕과 푸른 향아리

김만덕 묘비 기록

차례 CONTENTS

2017. 12 제2호

김만덕기념관 행사 | 65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김만덕 역사 유적지 탐방, 문화 체험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교육

만덕봉사단

청소년 나눔교실

2017 김만덕기념관 초대전

개관 2주년 기념식 및 공연

제2회 김만덕 나눔 콘서트

2017 김만덕 나눔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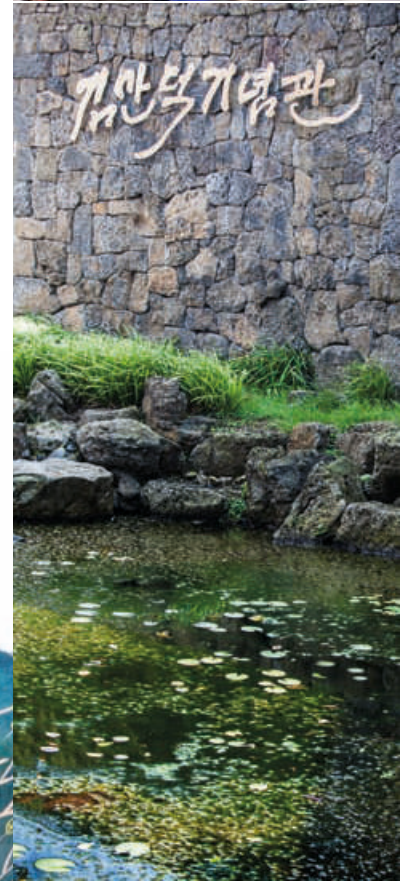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 113

나눔시설방문

기탁 및 기부

기념관 방문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제205주기 만덕제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

만덕제는 김만덕(金萬德, 1739년 ~ 1812년)을 추모하는 제례로 1812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10월 22일을 포함하는 주간에 사라봉 묘총사의 묘탑에서 거행한다. 198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김만덕상 시상식과 병행하여 38회에 거쳐 봉행하였다. 올해는 김만덕 별세 205주기가 되는 해로 그동안 탐라문화제 개막식 행사와 분리하여 독립 개최함으로써 만덕제 고유한 의미와 정통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만덕제 봉행 절차는 농악대의 길트기를 시작으로 봉제선언, 헌화와 분향(도지사 내외)에 이어 여성으로 이루어진 제관들이 전통적인 성군관의 제례에 따라 봉행한다. 초헌관이 상차림을 살피는 점시례를 시작으로 관세, 참신, 분향, 3차례의 술을 올리는 초헌, 아헌, 종헌례와 진다례, 음복례, 사신례, 축문을 태우는 분축례 순으로 엄수한다. 이어 기관장 및 단체장의 분향과 참가자 모두의 묵례로 제례의식을 마친다.





헌화 및 분향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강윤형 여사(왼쪽), 초헌관을 비롯해 10명의 제관이 모두 여성들이다. 농악대가 모충사 경내를 돌며 길트기를 하여 제주의 위대한 영성 의인 만덕제 봉행을 알린다. 제주 특산물인 감귤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머리, 떡인듯 빵 같은 제주떡빵이 올려진 전통적인 제주의 상차림이 이채롭다.

제38회 김만덕상 시상식

봉사부문 강난파(76세, 제주) 경제인부문 강옥선(58세, 제주)

만덕제 봉행에 이어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고두심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의 수상자 공적보고가 있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상을 하였다. 김만덕상은 1980년 만덕봉사상을 시상을 시작하여 수상인원은 45명(봉사부문 38, 경제인부문 7)이며, 2006년부터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제인부문을 신설하여 시상하고 있다.

제38회 김만덕상 봉사부문 수상자인 강난파(76세, 제주)씨는 제주지역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40여년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 확대에도 앞장서왔다. 경제인 부상자인 강옥선(58세, 제주)씨는 소규모 토산품가게를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도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장애인 공동체 등에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제주관광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제주경제활성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17년 10월 22일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제주도민들과 주요기관 단체장, 역대수상자 등이 묘탑경내를 가득 매운 가운데 거행하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예보되었지만 만덕제를 거행하는 동안 햇빛이 묘탑을 환히 비췄다. 한소리합창단의 김만덕 타령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만덕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만덕과 정조

은광연세^{恩光衍世}와 만천명월주인옹^{萬天明月主人翁}



창덕궁 존덕정(尊德亭) 정조의 자호인 萬天明月主人翁의 뜻을 설명한 자서(自序) 현판이 걸려 있다.

정조(이산 1752. 10. 28-1800. 8. 18)는 조선의 제22대 왕이며 대한제국의 추존 선황제이다. 호는 홍재(弘齋)이고, 1798년에 자호(自號)를 ‘시냇물이 만 개면 달도 만개지만, 하늘의 달은 하나뿐이다.’는 뜻의 만천명월주인옹(萬天明月主人翁)이라고 하였다. 이를 설명한 자서(自序)는 정조의 정치철학을 집약하고 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물과 달을 보고서 태극, 음양, 오행의 이치를 깨우친 바 있다. 달은 하나뿐이고 시냇물은 일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으면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어서 달과 시내의 수가 같게 되므로 시냇물이 일만 개면 달 역시 일만 개가 된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달은 물론 하나뿐인 것이다.

세상을 이끌어 갈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자는 높이고 척신은 낮추며, 환관과 궁첩은 멀리하고 어진 사대부를 가까이 한다.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쓰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며, 선한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겨 주고,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잘못된 것은 뒷전으로 하여, 규모가 큰 자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고, 재주보다는 뜻을 중히 여겨 양단을 잡고 거기에서 중을 택한다. 태극에 미루어 보면 그것이 각기 나뉘어 만물이 되지만, 그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보면 도로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 그 수는 우리 백성 수만큼이나 많다.”

정조의 왕정 목표 힘없는 백성의 보호

정조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교육,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정조는 힘없는 백성의 보호를 왕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궁궐 문 앞으로 백성을 모아 의견을 묻거나, 능행길에서 만난 상언(上言)을 경청하는 등 백성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힘썼다. 이 시기에 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윤음(綸音)이나 백성의 삶과 밀접한 시책이나 금령(禁令)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반포한 경우도 많았다.



자학전칙(字恤典則)

흥년에 버려진 유아나 걸식하는 어린이에 대한 구휼책을 적은 책. 윤음과 사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다. 윤음의 내용은 인정(仁政)의 본뜻에 따라 흥년에 버려진 유아나 걸식하는 어린이에 대한 구휼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사목은 정조의 뜻을 찬양하면서 구체적인 조목 9조가 제시되어 있다. 정유자로 인쇄한 활자본이 나온 후 전국의 감영에서 번각하였으며 8종의 목판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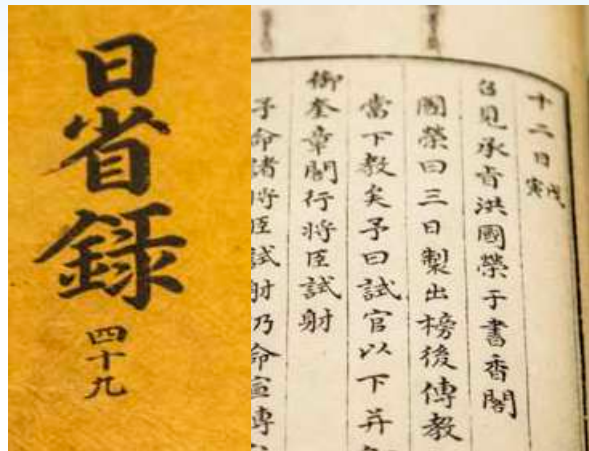
윤음언해(綸音諺解)

1781년(정조 5)부터 1784년(정조 8)까지 각종 윤음의 언해본 12종을 모은 책. 1781년에 제주 3읍에 흥년이 들어 기근이 심해지자 각종 규휼과 혜택을 베풀라는 윤음을 시작으로 12권의 윤음이 실려 있다.



일성록 김만덕 선행 기록

의녀(義女) 만덕의 알현을 받은 정조가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백여 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하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인 1796년 만덕의 선행이 알려지자, 정조는 제주목사 이우현을 통해 만덕의 소원을 물어보는데, 만덕은 한양에서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조는 “관의 허락없이 제주도민은 섬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규칙을 깨고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또한 내의원 차비대령행수(內醫院 差備待令行首)로 삼아 정조를 알현할 자격을 주고 그녀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하였다.



일성록 정조20년 11월 25일 命 濟州 妓 萬德 充 內醫院 差備待令行首
醫女見 金剛 還送時分付沿路優給糧資

신해통공(辛亥通共) 만덕객주 날개를 달다

천신만고 끝에 양민의 신분을 되찾은 김만덕이 제주 신지포구에 물산객주를 운영하며 연륜과 신용을 쌓을 때, 정조의 경제개혁인 신해통공(辛亥通共)이 1791년(정조 15)에 발표되었다. 이 조치는 정조의 개혁의지와 시장질서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채제공의 의도가 결합되어 경제적으로 독점상인의 특권을 폐지 또는 약화시켰다.

서산





김만덕 - 덕판배로 해상 물류를 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육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자원으로 제주에서 필요한 곡식과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김만덕의 물산객주는 날로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만덕은 육지의 배보다 빠르고 일본배보다 견고한 덕판배를 건조하고, 먼 바다 항해에 능한 제주의 선원들이 직접 육지를 왕래하는 상단을 운영함으로써 한양-전라도-경상도의 특산물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덕판배는 고려때부터 중국과 일본 본토의 십자로에 위치한 제주도의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국제해양물류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탁지지(度支志)

호조의 여러 사례와 연혁 등을 엮은 책으로서 정조가 호조 낭관 박일원에게 명하여 편찬하였다. 인조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와 재정, 조세, 국채, 화폐 등 재무행정 관련 내용들을 담아낸 책이다. 각 지방의 통계 자료를 통해 조선 후기 국가 재정 상황 및 사회경제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신해통공은 세가지 내용

첫째, 대상들이 육의전에만 부여된 독점권을 행사하고 권문세가와 결탁하여 영세상인의 난전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둘째, 물가안정을 도모한 경제개혁 정책이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독점상인들이 물품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고 생산자들에게 싼값으로 물품을 사들이고 소비자에게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팔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여 독점행위를 근절하여 물가를 안정시켰다.

셋째, 개혁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해통공이 시행되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영세상인을 압박하는 난전 단속행위를 반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었다.



제주 덕판배 복원

용수리 포구에는 제주의 덕판배가 복원되어 있으며,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제주에서 당진에 이르는 동국여도에 표기된 연안항로를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주 덕판배인 라파엘호의 구조를 확인하고 150여 년 전의 선형을 복원하였다(길이 13.5, 폭 4.8, 깊이 2.1미터).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31일 상해에서 출발하여 9월 28일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도착하였다. 10월 1일 배수리를 마치고 출항하여 10월 12일 금강 하류 나바위에 도착했다.

현릉원 능행 정조의 애달픈 효심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현릉원을 화산(화성)에 이장한 뒤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 능행을 명분으로 자주 거동하였다. 1795년(정조 19년) 을묘 원행에서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수원에서 과거(별시)를 열었다. 장용영의 군사들을 수반한 을묘 원행은 군사훈련을 겸한 것이었다. 정조 대왕 능행 반차도에는 경기감사가 앞을 서고 채제공이 그 뒤를 이었으며, 1,779명의 인물과 779마리의 마필이 등장하고 있다. 장용영은 정조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정예군으로 성장하였으나, 정조 사후 순조를 대리하여 수렴청정을 한 정순왕후에 의해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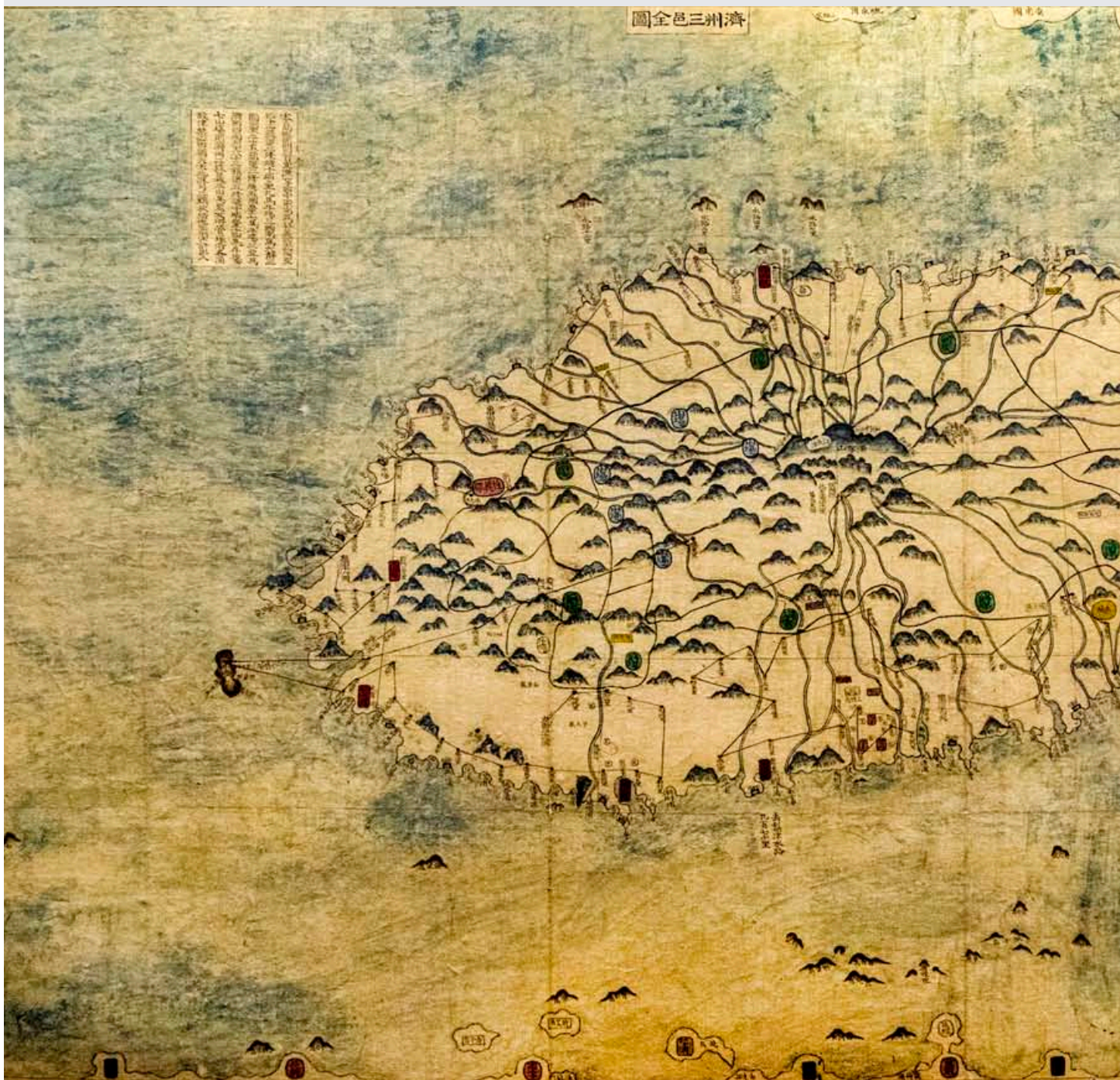
조선의 신도시 - 화성축조

화성은 1794년 착공하여 1796년 2년 7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성의 둘레는 5,744 m, 면적은 130 ha의 성으로 문루 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성곽을 이루었다. 수원 화성의 공사 책임자는 채제공이었으며 정약용이 거중기를 고안하였다. 축조에 동원된 인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공사에 사용된 자재, 인건비 등을 화성성역의궤에 모두 기록하여 남겼다. 정조는 화성에 유수부(留守府)를 두고 행궁과 군영을 설치하여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화성의 축조가 단순히 아버지를 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의 의지를 보여준다.



만덕의 정조 알현 제주도민 소원을 풀다

김만덕 물산객주에는 물건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각지의 정치 경제적인 사정, 서학 등 종교, 문화와 예술이 함께 교류하였다. 한양의 소식은 제주로, 제주의 동정은 특산물에 담겨 한양으로 전해졌다. 갑인년 대기근에 제주도민을 스스로 구휼한 김만덕의 선행을 보고받은 정조는 크게 치하하고 만덕의 소원인 두 가지, 한양의 궁궐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도록 각 고을에서 숙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체재공에게 만덕전을 지어 널리 알리도록 명했다.



정조의 제주민에 대한 배려

정3품 외직 문관인 관리가 제주목사로 임명됐을 때 중앙에서 좌천되어 가는 자리로 생각하여 피하고 싶은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조는 제주를 죄인을 유배시키는 변방의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제주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의 지평을 넓히는 희망의 섬이었다. 정조7년 4월23일 제주목사를 묘당(廟堂)에서 의천(議薦)토록 규칙화하고, 11월 5일 자훈전칙 반포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선정을 베풀도록 하였다.



인정을 베푸는 정조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은 능행길의 임금을 만발치에서라도 보기위해 전국팔도의 백성이 모여들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조 16년 2월 25일에 구경나온 사람을 위해 어가 행차시 야간 통금을 해제할 정도였다. 하지만 출륙 금지령에 묶인 제주도민은 소문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만덕의 구휼로 생명을 건진 많은 도민들이 임금을 알현하고 귀환하는 만덕을 마중하기 위해 별도포구를 가득 메웠다.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도민의 마음에 정조의 달빛(만천명월주인옹)이 백성 수만큼 빛났다.

제주의 거상으로 성장한 김만덕과 개혁 군주인 정조가 바라는 세상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로 그 맥이 닿아 있다. 정조가 있었기에 김만덕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모든 백성의 귀감이 되는 김만덕으로 인해 정조의 개혁과 애민의 선정이 더욱 빛나고 있다.

제주삼읍전도(제주濟州三邑全圖)

1872년에 전국 군현지도.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지 쪽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돼 있으며 주위에 간지(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했다. 기생화산인 오름의 중간간 지대에는 10개의 목마장, 각 면에 소속된 마을들과 마라도, 남쪽 끝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도 표시했다.

꿈은 사라지고 건릉(健陵)에 잠들다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으로 24년 재위하였으며, 1800년 5월말 49세의 젊은 나이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까지 노론 강경파를 다그치며 군주의 달빛과 백성의 냇물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을 걷어내고 만백성이 태평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 노론 강경파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정조의 개혁에 참여한 유능한 인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외척 중심의 세도정치로 인해 국왕의 힘과 권위가 추락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조선은 정조의 사후 100년 만에 경술국치를 당했다. 정조는 장조(사도세자)와 현경왕후(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나서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을 겪었다. 1776년 왕위에 올라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통성이 사도세자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후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 정치를 펼쳤으며, 신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하였다. 1800년에 정조의 무덤 건릉이 아버지 무덤인 용릉 근처에 조성되었다. 효의왕후는 시어머니인 현경왕후를 정성껏 모셨고, 1821에 돌아가셨다. 효의왕후의 무덤을 조성할 때 기존의 정조 건릉을 지금의 위치로 이장한 후 합장하였다.



정조의 생애



1752년	장조(사도세자, 장헌세자)와 현경왕후(혜경궁 홍씨)의 아들로 창경궁 경춘전에서 태어남
1759년	영조가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
1762년	왕세손 정조와 세손비(효의왕후)가 가례를 올림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심
1775년	영조의 왕위를 이어가기 위한 대리청정
1776년	영조 효손이라는 은인을 남기고 서거, 정조 왕위에 오름
	왕실 도서를 수집, 연구하는 규장각을 설립. 정조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
1782년	강화도에 외규장각 완성. 외규장각에는 왕과 비의 어보를 비롯하여, 왕이 쓴 글과 의궤 등을 보관
1785년	장용위 설치. 왕권강화를 위한 국왕 호위 군대로 후에 장용영으로 명칭을 바꿈
	대전통편을 반포.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여러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1790년	무예도보통지 완성. 실무에 필요한 전투 기술을 다룬 훈련서
1796년	정약용의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수원화성 완성. 김만덕 정조 알현함.
1800년	향년 49세에 서거. 건릉에 묻힘



정조의 발자취 창경궁. 규장각. 수원화성. 건릉

1796년 만덕의 선행이 알려지자, 정조는 제주목사 이우현을 통해 만덕의 소원을 물어 보는데, 만덕은 한양에서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조는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 내의원 차비대령행수(內醫院 差備待令行首)로 삼아 정조를 알현할 자격을 주었다. 만덕의 알현을 받은 정조가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백여 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하다.”라고 칭찬한 곳이 창덕궁이다.

김만덕이 제주를 출발하여 삼남길을 거쳐 수원화성을 거쳐 한양에 이르게 된다. 창경궁 비원 뒤편에 위치했던 규장각은 주건물이 해체되고 이안각, 주합루, 부용정만 남아있다. 보관된 도서는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전되고, 광복 후 서울대 규장각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용건능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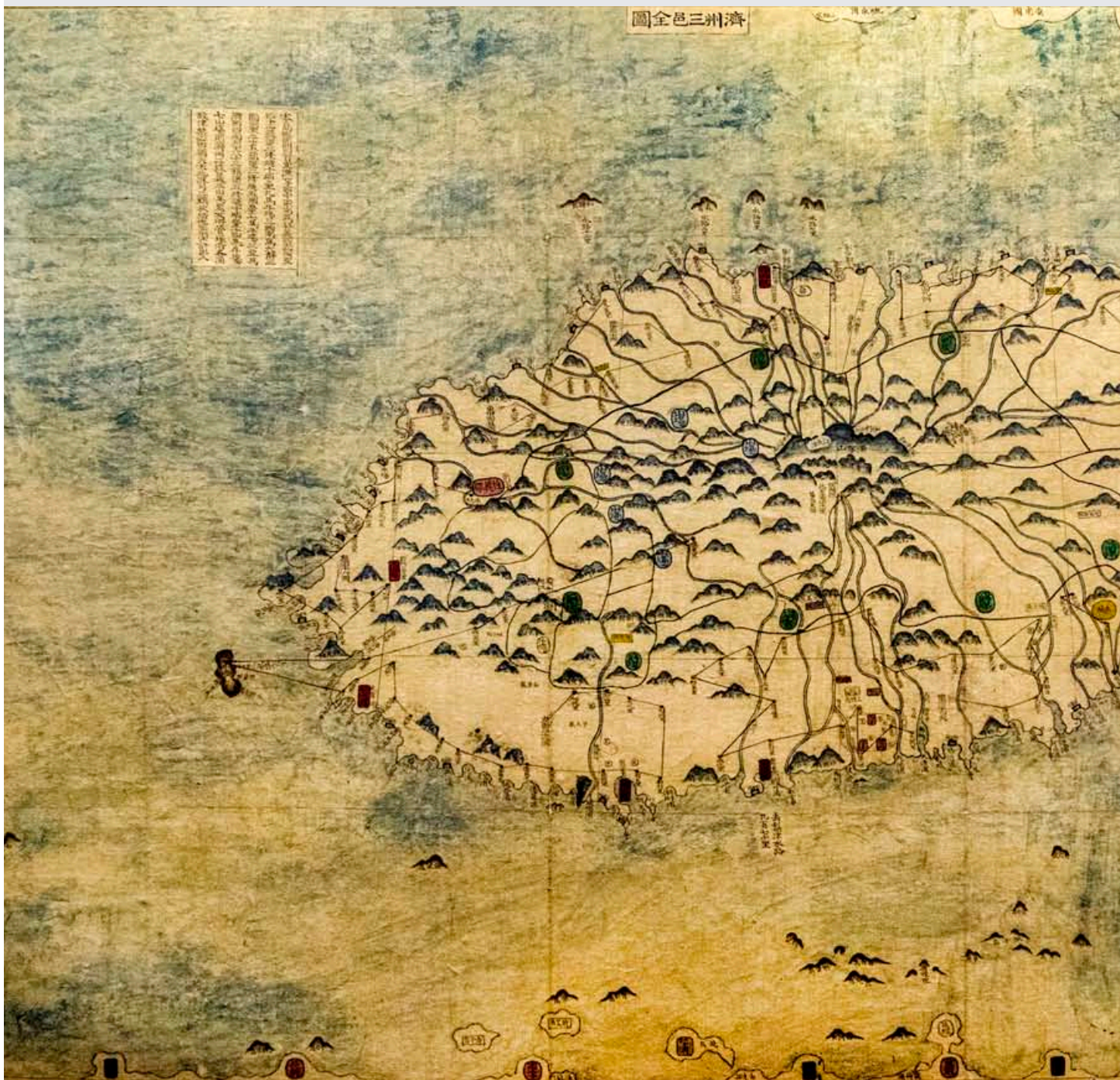
조선의 신도시 - 화성축조

화성은 1794년 착공하여 1796년 2년 7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성의 둘레는 5,744 m, 면적은 130 ha의 성으로 문루 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성곽을 이루었다. 수원 화성의 공사 책임자는 채제공이었으며 정약용이 거중기를 고안하였다. 축조에 동원된 인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공사에 사용된 자재, 인건비 등을 화성성역의궤에 모두 기록하여 남겼다. 정조는 화성에 유수부(留守府)를 두고 행궁과 군영을 설치하여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화성의 축조가 단순히 아버지를 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의 의지를 보여준다.



만덕의 정조 알현 제주도민 소원을 풀다

김만덕 물산객주에는 물건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각지의 정치 경제적인 사정, 서학 등 종교, 문화와 예술이 함께 교류하였다. 한양의 소식은 제주로, 제주의 동정은 특산물에 담겨 한양으로 전해졌다. 갑인년 대기근에 제주도민을 스스로 구휼한 김만덕의 선행을 보고받은 정조는 크게 치하하고 만덕의 소원인 두 가지, 한양의 궁궐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도록 각 고을에서 숙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체재공에게 만덕전을 지어 널리 알리도록 명했다.



정조의 제주민에 대한 배려

정3품 외직 문관인 관리가 제주목사로 임명됐을 때 중앙에서 좌천되어 가는 자리로 생각하여 피하고 싶은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조는 제주를 죄인을 유배시키는 변방의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제주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의 지평을 넓히는 희망의 섬이었다. 정조7년 4월23일 제주목사를 묘당(廟堂)에서 의천(議薦)토록 규칙화하고, 11월 5일 자훈전칙 반포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선정을 베풀도록 하였다.



인정을 베푸는 정조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은 능행길의 임금을 만발치에서라도 보기위해 전국팔도의 백성이 모여들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조 16년 2월 25일에 구경나온 사람을 위해 어가 행차시 야간 통금을 해제할 정도였다. 하지만 출륙 금지령에 묶인 제주도민은 소문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만덕의 구휼로 생명을 건진 많은 도민들이 임금을 알현하고 귀환하는 만덕을 마중하기 위해 별도포구를 가득 메웠다.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도민의 마음에 정조의 달빛(만천명월주인옹)이 백성 수만큼 빛났다.

제주의 거상으로 성장한 김만덕과 개혁 군주인 정조가 바라는 세상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로 그 맥이 닿아 있다. 정조가 있었기에 김만덕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모든 백성의 귀감이 되는 김만덕으로 인해 정조의 개혁과 애민의 선정이 더욱 빛나고 있다.

제주삼읍전도(제주濟州三邑全圖)

1872년에 전국 군현지도.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지 쪽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돼 있으며 주위에 간지리로 된 24방위를 배치했다. 기생화산인 오름의 중간간 지대에는 10개의 목마장, 각 면에 소속된 마을들과 마라도, 남쪽 끝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도 표시했다.

꿈은 사라지고 건릉(健陵)에 잠들다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으로 24년 재위하였으며, 1800년 5월말 49세의 젊은 나이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까지 노론 강경파를 다그치며 군주의 달빛과 백성의 냇물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을 걷어내고 만백성이 태평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 노론 강경파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정조의 개혁에 참여한 유능한 인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외척 중심의 세도정치로 인해 국왕의 힘과 권위가 추락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조선은 정조의 사후 100년 만에 경술국치를 당했다. 정조는 장조(사도세자)와 현경왕후(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나서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을 겪었다. 1776년 왕위에 올라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통성이 사도세자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후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 정치를 펼쳤으며, 신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하였다. 1800년에 정조의 무덤 건릉이 아버지 무덤인 용릉 근처에 조성되었다. 효의왕후는 시어머니인 현경왕후를 정성껏 모셨고, 1821에 돌아가셨다. 효의왕후의 무덤을 조성할 때 기존의 정조 건릉을 지금의 위치로 이장한 후 합장하였다.



정조의 생애



1752년	장조(사도세자, 장헌세자)와 현경왕후(혜경궁 홍씨)의 아들로 창경궁 경춘전에서 태어남
1759년	영조가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
1762년	왕세손 정조와 세손비(효의왕후)가 가례를 올림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심
1775년	영조의 왕위를 이어가기 위한 대리청정
1776년	영조 효손이라는 은인을 남기고 서거, 정조 왕위에 오름
	왕실 도서를 수집, 연구하는 규장각을 설립. 정조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
1782년	강화도에 외규장각 완성. 외규장각에는 왕과 비의 어보를 비롯하여, 왕이 쓴 글과 의궤 등을 보관
1785년	장용위 설치. 왕권강화를 위한 국왕 호위 군대로 후에 장용영으로 명칭을 바꿈
	대전통편을 반포.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여러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1790년	무예도보통지 완성. 실무에 필요한 전투 기술을 다룬 훈련서
1796년	정약용의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수원화성 완성. 김만덕 정조 알현함.
1800년	향년 49세에 서거. 건릉에 묻힘



정조의 발자취 창경궁. 규장각. 수원화성. 건릉

1796년 만덕의 선행이 알려지자, 정조는 제주목사 이우현을 통해 만덕의 소원을 물어 보는데, 만덕은 한양에서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조는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 내의원 차비대령행수(內醫院 差備待令行首)로 삼아 정조를 알현할 자격을 주었다. 만덕의 알현을 받은 정조가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백여 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하다.”라고 칭찬한 곳이 창덕궁이다.

김만덕이 제주를 출발하여 삼남길을 거쳐 수원화성을 거쳐 한양에 이르게 된다. 창경궁 비원 뒤편에 위치했던 규장각은 주건물이 해체되고 이안각, 주합루, 부용정만 남아있다. 보관된 도서는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전되고, 광복 후 서울대 규장각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용건능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있다.



제주문화 답사 2

제주목 관아

사적 제380호. 제주시 관덕로 25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Jeju-mok Government Office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는 관덕정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다. 관아시설은 1434년(세종 16) 관부의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1435년부터 재건이 이루어졌다. 제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훼손 및 철거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제주시에서는 탐라국부터 조선시대 제주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를 원래의 양식으로 복구하기 위해 1991년부터 7년 간 발굴조사를 하여 여러 문화층과 홍화각, 연희각, 우련당, 굴림당 등의 건물터와 유구를 확인하고 유물을 출토할 수 있었다. 탐라순력도, 탐라방영총람 등 문헌과 문화재, 사학자 등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관아지 복원 기본설계를 하였다. 복원공사는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복원을 마쳤다.



목(牧)이란 고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단위로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였다. 993년(고려 성종 2)에는 12목, 1018년(현종 9)에는 8목, 1413년(태종 13)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20목을 두었다. 각 목에는 정 3품 지방관인 목사(牧使)를 파견하였다.

공마봉진(말 진상. 왼쪽 그림)

각 목장에서 진상에 필요한 말을 징발해 온 후 관덕정 앞에서 제주 목사가 확인한다.

감굴봉진(굴 진상. 오른쪽 그림)

연희각과 망경루 앞뜰에서 감굴과 굴껍질을 선별, 검사, 포장과정을 묘사하였다.



탐라지(1653년 효종4)



제주 동쪽으로 정의현 경계까지 80리, 서쪽으로 대정현 경계까지 81리이며 남쪽 바다까지 120리, 북으로 바다까지 1리 거리다. 해남 관두랑(해남군 화산면 관동리)까지 바닷길 970리이다.
관아를 세우고 존치한 내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의 변천

시기	연혁
상고시대-삼국시대	탐라(탁라)국
1105년(고려 숙종10)	탐라국호 폐지, 탐라군 설치
1192-1259년(고려 고종)	탐라군을 제주로 개편
1275년(고려 충렬왕 원년)	탐라국으로 회복, 총관부 설치
1294년(고려 충렬왕 20)	고려로 환속, 제주로 복호
1397년(조선 태조 6)	제주목 설치
1416년(조선 태종 16)	제주목에 정의현, 대정현 설치
1783년(조선 정조 7)	제주목사 의정부에서 추천 임명 규칙화
1788년(조선 정조 12)	제주도에 전영병 창설
1794년(조선 정조 18)	제주도에 자연재해로 대기근 발생
1796년(조선 정조 20)	김만덕 정조알현, 제주도민 포상 및 위로
1864년(조선 고종 1)	정의, 대정현을 군으로 승격, 전라도 관찰사 관할
1880년(조선 고종 17)	다시 현으로 환원
1895년(조선 고종 32)	제주목을 부로 개편, 관찰사를 둠
1906년(대한제국 광무 10)	목사를 폐지, 군수를 둠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정의, 대정군을 제주군에 합군
1915년 5월(일제강점기)	군제 폐지, 도제로 개편
1955년 9월 1일(대한민국)	제주읍을 제주시로 승격(1시, 2군)
2006년 7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행정시, 7읍, 5면 31개 동)



연희각(延曦閣) 우련당(友蓮堂)



연희각은 목사가 집무를 하던 건물이다. 연희는 외신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1924년 여름 일제가 강제로 철거한 건물이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기붕으로 면적은 136.6㎡이다. 소녀 김만덕이 기녀에서 양민 신분을 되찾은 곳이다.



우련당(友蓮堂) 1526년(중종 21)에 이수동 목사가 성안에 위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판 연못이다. 연꽃을 심고 정자를 세워 연회장으로 활용했다. 그 뒤 양대수 목사가 연못을 메웠는데, 영조때 김정 목사가 정자를 중수하고 못 가운데 석대를 쌓아서 꽃과 대나무를 심어 공물을 봉진하는 장소를 사용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 지붕면적 88.98㎡이다.

귤림당(橘林堂) 만경루(萬景樓)



이원조 목사의 귤림당 중수기에 따르면 귤을 재배하는 국가 과수원이 36곳인데 관아에 있는 귤림당만이 연희각 가까이에 있어 과일향에 심신이 상쾌해진다고 있다. 1743년(영조 19) 안경운 목사가 재건하였다. 건물 규모는 정면 1칸, 측면이다.



만경루는 북두성을 의지하여 임금이 있던 서울을 바라보며 그 은덕을 기리는 누각이다. 1556년(명종 11) 김수문 목사가 창건하고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관덕정(觀德亭)

보물 322호

관덕정은 조선 세종 때인 1448년 안무사 신축청이 병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세운 제주도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제주목 관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건립 이후 그 원형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수리해 오던 중 일제강점기인 1924년 일본인이 수리하면서 지붕처마가 2척정도 잘려 변형되었으나 2006년 보수를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편액은 안평대군(또는 선조 때의 이산해)이 썼다고 하며, 전면 5칸 측면 4칸 단층 팔작 겹처마 양식이다. '관덕'이란 명칭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射者所以觀盛德也)'라는 예기(禮記)의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쌓는다'는 뜻이며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김만덕이 관덕정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굽주린 이들에게 죽을 쑤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 군인 훈련 이외에 관민이 모여 공사를 의논하거나 잔치를 베푸는 곳이었다.



1901년 제주 교안(濟州敎案) 직후의 관덕정 이재수가 이끈 민군들이 관덕정 앞에서 천주교 신자 300~350명을 처형하였다. 여성과 아이까지 살해된 시신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황사평에 안장되었다. 민란은 1901년 5월 초에 시작되어 6월 초까지 이어졌다.

김만덕 선양을 위한 활동



김만덕기념관의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김만덕기념사업회(고두심 상임대표)는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김만덕에 대한 조사, 연구 등 학술사업과 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과 상생의 실천정신을 전국화하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함께 나눔의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2003년 11월 발기인 총회를 갖고 창립하였으며 2004년 2월 법인설립 허가(제주도)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만덕에 대한 각종 학술 세미나의 개최,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김만덕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김만덕 묘 문화재 지정 추진, 김만덕 자료총서 2권 발간, 김만덕 나눔쌀 천 섬 쌓기, 김만덕 나눔쌀 만 섬쌓기 등을 통해 김만덕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농협에서는 김만덕의 초상을 농촌사랑 삼품권에 사용하였으며, 새로 발행할 5만원권에 김만덕의 초상화를 넣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조폐공사에서는 한국인물 100인 시리즈 ‘김만덕 메달’을 제작하였다. 만 섬쌓기에서 조성된 기금을 국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해외지원사업도 추진하여 번포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김만덕 표준영정을 제작하여 만덕관에서 봉인식을 가졌다. 김만덕 서거 200주년인 2012년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김만덕 정신의 계승을 위한 김만덕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김만덕을 알리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전시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김만덕 나눔쌀 한 줌의 쌀이 만덕(萬德)을 이루다

2007년 제주 관덕정에서 '김만덕 나눔쌀 천 섬 쌓기'를 성공적으로 치러 제주도내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이는 희망의 나눔쌀은 감동의 나눔쌀이었다. 초등학교의 고사리 손에 들린 쌀 한봉지, 나눔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후원, 도민들의 십시일반의 정성이 모여 당초 계획했던 '천 섬'을 초과하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 감동은 2009년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로 이어졌다. 2009년 10월 1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만 섬의 나눔쌀이 산처럼 쌓였다.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세계빈곤퇴치의 날' 특집 생방송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로 KBS1TV를 통해 1시간 25분동안 전국으로 생중계되어 김만덕의 나눔과 상생, 실천의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만섬쌓기의 성과는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지정, KBS '거상 김만덕' 드라마 제작 방영으로 이어졌고, 이후 김만덕 가문의 김균선생이 가보로 보관해오던 추사 김정희의 '은광연세' 편액을 기념사업회에 기부해 공개했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김만덕기념관' 건립에 다가섰다. 당시 서울시내 150만 초·중고등학생들이 모은 쌀과 기업, 시민들의 정성어린 기부로 모인 기부금액은 목표액 만 섬을 초과해 2만 섬에 육박했다.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어 모아진 김만덕 나눔쌀 2만섬은 서울과 제주의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세대, 결손빈곤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세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등에 전달되었다. 또 한 목표액을 뛰어넘는 초과분은 해외빈곤아동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만덕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2007 천 섬 쌓기(제주)



2009 만 섬 쌓기(서울)





2012 만 섬 쌓기(서울과 제주)



김만덕 사랑으로 세계를 품다

2010년 9월 27일 베트남 푸토성과 김만덕기념사업회와 만덕중학교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 지원을 시작하였다. 약 2년의 공사를 마치고 건립하여 기부한 베트남 만덕학교는 푸토성 비엠티시에 18개 학급 약 700명 규모의 '번푸만덕중학교'와 칸호아성 캄란현에 20개 학급 약 350명 규모의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이다. 번푸만덕중학교는 제주 제일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2017년 하노이한양대학교 총동문회와 자매결연을 하여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라초등학교는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3박 4일동안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제주로 초청하여 우정을 나누고 있다. 한라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지평을 넓혔다. 베트남의 만덕학교 학생들은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있으며, 학습용품과 컴퓨터 지원 등으로 베트남에서 일류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베트남과 라오스 등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남수단에 드림 바이크 캠페인등을 벌렸다. 제주도의 '만덕할망'에서 명실상부 대한민국과 세계속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빈곤 퇴치와 보편적 여성인권신장의 상징으로서의 '김만덕'으로 그 정신이 세계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 번푸만덕중학교 양해각서 체결



2012 베트남 만덕학교 준공식





2012 베트남 만덕학교 조인식



2012 라오스 의료봉사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꿈

자매결연 한라초등학교 초청 -제주에서의 3일



베트남에 제주와 만덕이 들어간 학교는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 벤푸만덕 중학교가 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후원기업들의 참여로 총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실 20개 신축과 교육시설을 지원한 해외기부사업으로 2012년 건립된 학교이다. 조선시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한 김만덕의 정신을 세계화하는 발판이기도 하다.

자매결연 학교인 한라초등학교(교장 김창식)의 초청으로 2017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학생 10명과 학교장과 관계인사 5명이 제주를 방문해서 김만덕기념관 방문, 한라초등학교 합동수업, 자연사박물관 견학을 하였다. 제주의 풍광을 흠스테인한 친구와 찍지어 돌아보며 양국 어린이들이 우정을 키웠다.



김만덕기념관 방문에서는 자신들의 학교와 제주와 관련된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공동대표는 “제주를 방문하는 동안 선생님과 학생모두 몸 건강하게 돌아보며, 좋은 추억을 만들라.”고 당부하였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은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 제주도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와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을 설명을 해주었다. 올해 베트남 칸호아와 벤푸를 방문해서 학교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교육기자재 등을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라초등학교 김창식 교장은 “한국과 제주도가 잘 사는 나라, 고장이 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였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베트남에 돌아가면 보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였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 보 티 탄 호명 교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온 학생들에게 김만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호명 교장과 학생들에게 김만덕은 역사의 인물이 아닌 자신들의 삶에 깊숙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준 살아있는 제주의 은인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은 한라초등학교에서 컴퓨터, 체육수업에 참여하였다. 한라초등학교 교직원과 이민숙 학부모회장과 어머니들은 정성을 다해 공항마중부터 집을 떠나 멀리 외국까지 와서 긴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돌봐주었고,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가정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00명 학생들이 제주를 가는 꿈을 꾸는 가운데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은 제주에 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모범생들로 이루어졌다.



제주의 어린 소녀 김만덕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육지로 향하는 배를 보며 ‘나도 임금이 사는 한양과 금강산 경경을 할 수 있을까?’ 꿈을 키웠다. 그 꿈은 먼나라 베트남 소수민족의 소녀에게 옮겨갔다. 선생님과 언니들에게 말로만 들던 제주에서 3일, 어린이들에게 베푼 평생 잊지 못할 김만덕의 선물이었다.



베트남 만덕학교 사랑으로 자라는 꿈나무

2017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김만덕의 얼이 깃든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 ‘번푸만덕중학교’에 자전거 110대를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13일에는 칸호아성 수오이깃읍의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40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양은정)가 준비한 학용품, 기념사업회 오정희이사(정희직물 대표)가 마련한 티셔츠를 전달했다. 특히 칸호아제주초등학교측에서 교내 화장실 신축 및 건물 도색 공사를 요청해 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15일에는 푸토성 비엠티시의 번푸만덕중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70대를 기증했고, 기념사업회 고추월이사(월자포장 대표)는 두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10,000달러를 기부하고, 방문단 중 조영숙씨는 2,000달러를 기부했다. 특히 전달식에 이어 한양대학교 하노이 동문회와 번푸만덕중학교가 양측의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해 앞으로 한양대학교 하노이동문회의 번푸만덕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 기념사업회 김문자공동대표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는 기념사업회 양원찬 공동대표를 비롯해 고추월, 오정희 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양은정 회장과 임원, 만덕로 타리클럽 백선옥 회장과 임원, 그리고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 양영철 위원장과 강명순 부위원장과 실무팀 등 19명이 참가했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태풍 ‘담레이’로 큰 피해 입은 칸호아성에 위치

칸호아제주초등학교는 베트남의 중서부 칸호아성의 캄란현에 위치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캄란만 나트랑(나짱)은 파월한국군의 주둔지가 있던 곳이다. 나트랑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 칸호아제주초등학교가 있다. 칸호아성은 참파왕국의 참족 등 소수민족의 지역이다. 호화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는 나트랑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소득이 낮은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11월 4일 30년만에 가장 큰 태풍인 담레이가 상륙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주택 2만 4천여 채가 파손되었으며 주민 3만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칸호아초등학교의 시설은 파손되지 않았으나 인근의 공공기관이나 주택의 지붕이 날라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건설해 준 건물만 무사해 새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실감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잘 정돈됐지만 몇 권의 책만 비치되어 있는 넓은 독서실을 잘 모셔진 김만덕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보 티 탄 호명 교장이 기념관에서 선물받은 영정을 잘 모셔 놓은 것이다. 기념사업회 고추월이사(월자포장 대표)는 “낡은 슬리퍼를 벗어놓고 맨발로 춤을 추며 방문단을 환영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며 안쓰러워 했다. 방문단은 우선 시급한 화장실의 신축과 도색 작업 등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생대표로 나선 어린이는 “김만덕 할머니께서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을 도운 분이 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감사해 했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학생들의 수줍어하는 모습이 예뻐다. 열악한 학교재정으로는 어렵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보였다.





번푸만덕중학교

베트남 북부 푸토성의 명문학교로 발돋움

번푸만덕중학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85km에 위치한 푸토성의 번푸현에 번푸만덕중학교가 있다. 번푸만덕중학교는 번푸에서 가장 큰 학교로 1965년 번푸중학교로 설립되어 2012년 5월에 번푸만덕중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였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라'는 교육 목표로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래의 베트남' 노래로 방문을 환영하고 교사들은 '번푸 내고향' 공연을 펼쳤다. 대장금 '오너라' '아리랑' 등의 공연을 학생과 교사가 공연을 펼쳐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했다. 번푸 시도간부, 외무, 교육, 시청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응 우엔 티 홍 란 교장은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지원에 감사하고, 2013 제주 제일중학교 방문을 특별한 추억과 의미로 간직하고 있다.' '기부받은 자전거 70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학교를 더욱 잘 관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 발전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기념회 양원찬 공동대표의 답사에 이어 하노이 한양대학교 동문회 대표와 번푸만덕중학교장은 학생복지 증진활동, 학교 개발을 위한 멘토링 및 상호 협력, 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공동대표



김만덕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행사를 마친 김문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김상훈 김만덕기념관 관장을 만났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고두심 상임대표,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는 2015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김만덕기념관의 운영을 하고 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활동

김문자대표 1971년 10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설립되고, 1977년 사라봉 모충사를 설립, 김만덕 묘 이전 사업을 끝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강재업 일출랜드 회장이 기념사업회 대표로 있을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는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7년 관덕정 앞에서 ‘김만덕 나눔쌀 천 섬 쌓기’ 행사

가 있었습니다. 기대이상으로 많은 제주도민들께서 참여해서 목표한 천 섬을 훌쩍 넘어섰을 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감의 지극도 생생합니다. 2009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로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관장 2010년 3월부터 KBS에서 방영된 ‘거상’이라는 드라마도 시청률 17%로 김만덕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제주와 서울에서 2만 섬 쌓기 행사를 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나트랑에서 1년간 베트남 현지공장 경영을 맡고 있었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도 소수민족이 사는 오지인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하노이 인근지역의 빈민학교에 대한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연으로 매년 한라초등학교와 칸호

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와 베트남을 서로 방문하여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돈과 빈곤 속에서 일어난 제주의 기업인

김문자 대표 제가 1938년 생으로 어느새 팔순을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서 제주 4·3사태,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21세에 결혼해서 아들 2, 딸 3에 손주는 8명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두는 세대가 아니라서요.

김상훈 관장 올해 결혼 60주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문자 대표 남편 강덕주 회장과 처음에 관덕정 앞에서 문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도청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5·16군사 정변이 나면서 신군부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배를 이용해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상대로 부두로 여관으로 찾아다니며 토산품을 판매하며 어렵게 재기를 하였습니다. 칠성통에서 가게를 했는데 마침 앞에 대한항공 지점이 있었고 하루에 2편을 운행하였습니다. 일본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제주에 오셔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냐?”고 물었습니다. “비행장에서 토산품을 판매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노트공장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비행장 관제탑 소장과

알게되고, 도에서 추천서류를 받아 탁자만한 매대를 놓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 오가며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자리가 없으면 기장석 옆에도 태워주는 시절이었지요. 몇 년이 지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인삼차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터미널에 토산품 판매대도 외지인이 운영하는 2곳이 더 생겼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토박이라서 전송하는 제주도 분 중에 꼭 아는 분이 계셔요. 얼굴보고 판매 못가잖아요. 우리 판매대에 손님이 몰리니까 옆 가게에서 덤핑을 해서 반품요구를 자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 매장도 모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돈 다버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육지사람 돈만 번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주도가 있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제주도에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제주도에 환원해야 한다는게 우리집 양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때는 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매년 1억씩 7번을 기부하였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고객기부자 모임)는 극구 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깡패들이 와서 구내 스낵식당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장소가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해서 960평 청사 옆에 360평의 건물을 지어 2번 기부채납을 하고 10년 간 무상 임대를 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5공화국 들어 1982년 신청사가 들어서고 부산지역에서 사업권을 노리고 청와대에 투서하고 세금 포탈로 고발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무고함이 밝혀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4년마다 입찰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대기업 위주로 강화하여 제주토착기업의 입지가 매우 좁아져서 토속음식점과 토산물 판매만 제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콘소시엄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지만, 80명의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했고, 우리집 양반이 많이 고생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직원들은 오래 근속하고 제일 오래된 직원이 27년, 24년 되었습니다. 여상을 졸업해 입사해서 이제 시집보내고 손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활동

김문자 대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1967년부터 대한적십자 부녀봉사단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했는데 우리집양반이 직원들 출퇴근용 봉고차를 내어주어 열심히 봉사를 다녔습니다. 천사보육원 할머니가 “보육원에 가장 먼저 찾아 온 사람이 너희

들이다.”며 지금도 반겨주시고, 지금은 시설이 호텔급 이더군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그때를 추억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도 많았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2주년 소회

김문자 대표 김만덕기념관 부지선정 과정부터 “기념관을 지어 놓으면 누가 가느냐? 물통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려는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상훈 관장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김만덕 할머니가 저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김상훈 관장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상훈 관장 저도 김만덕 할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관장으로 취임했을 때 빈 건물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석고상만 덩그러니 놓여있는데 서둘러 개관식때 들어온 쌀을 할머니 앞에 쌓고, 김만덕사업회와 기업 및 개인 협찬 기금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쌀 50톤(1억 원상당) 유물보관함도 짜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민간기업에서



경영을 책임져왔는데, 관과 협력한 업무가 처음이라 공무원의 관행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언론이나 도의 회 등에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김만덕 기념관의 사업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를 하고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분들이 쌀과 성금을 보태주셔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주특별자치도, 언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려가 많았던 기념관 방문객도 2015년 4만 명, 2016년 6만 6천명, 올 해는 8만 명을 예상합니다. 올해는 제주시에서 먼 곳에 있는 초등학교나 어르신을 찾아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향후 계획

김상훈 관장 김만덕기념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으로 학술 연구, 전시 이외에 김만덕의 나눔을 실천하는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무 관련기관과 사업영역과 규모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지만 김만덕기념관에서 수익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예산지원이 없이도 자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덕 사랑의 나눔 쌀은 곡식 이상의 가치

김상훈 관장 그렇습니다. 요즘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념관을 찾은 분들께서 영정이 들어간 쌀을 얻어갈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김만덕 기념관 행사에서 1kg 쌀은 행사를 마치기 전에 동이나곤 합니다. 김만덕의 쌀은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전해성 박사도 기념관을 방문해서 김만덕 쌀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나눔의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 쌀을 브랜드화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주에서 생산되는 보리쌀의 경우 만덕보리쌀로 공급한다면 좋아하실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쌀을 생산하지 않지만, 만덕할머니께서 정조알현길에 김제를 거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쌀로 지은 밥을 드셨을 것이고, 제주도민 구휼에도 그 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바로 도정한 쌀을 먹는게 아니라 그분들도 맛난 쌀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월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바로 포장한 쌀을 전해드리려 마음이 편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좋은 쌀 먹어야 합니다.

김문자 대표 김만덕할머니가 정조알현을 위해 배를 타고 상경했던 길을 답사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김만덕 할머니는 화북포구에서 배를 타고 삼남길을 거쳐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했던 최초의 여성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덕할머니의 정조알현길을 따라 걸으며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인내하고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훈 관장 김만덕 할머니가 육지와 교역을 했던 배가 제주의 덕판배입니다. 그 배로 남해안 일대는 물론 서해안, 동해까지 연안항로는 물론이고 신지항에서 왼쪽으로 가면 대만 마카오에 이르고 오른쪽으로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닿습니다.

김문자 대표님께서도 관을 상대로 사업을 계속하셨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이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객주 초기에는 관을 상대를 사업을 해서 기반을 닦았을지는 모르지만 거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지와 네트워크, 당시 제주의 해외 중계무역까지도 발굴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 대표님 앞으로는 건강하고 많은 봉사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읽는 김만덕스토리

만덕과 푸른 향아리

글·그림 홍진숙



어릴적 김만덕할머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내가 나눔을 준 김만덕의 나이가 되어 사라봉에 있는 모충사 김만덕기념비를 다시 찾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라고 쓰인 묘비앞에 섰다. 제주도 여성으로서, 어릴적부터 무수한 이야기를 들은 그녀를 그림책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렘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제주에는 웅기문화가 있다. 제주웅기는 생활공간에서 곡식이나

장류를 담아두거나 물항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웅기향아리가 이번 그림책에서는 상징적으로 푸른향아리로 등장하게 된다.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웅기는 김만덕의 정신과도 닮았다고 생각된다.

푸른향아리를 그림책의 각 장면마다 넣어보았다.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녀의 묘비를 보면 거룩한 뜻이 다시금 푸른향아리로 되살아나기를 그림책을 그리면서 바랐다.





만덕과 푸른항아리

Man-duk and the Blue pot



안녕! 나, 만덕이야.
만 가지 덕을 베풀라는 뜻이지.
남쪽에 있는 바람의 섬에서
태어났어.

Hi, it's me, Man-duk. My name
means "to practice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I was born on the island of wind in
the south.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기생이 되었지만 나에게
게는 꿈이 있었단다.

그건 바로,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최고의
상인이 되는 것이었어.

나는 원님을 찾아가 간청했어. “제가 본디
양인의 신분이었으니, 부디 기생이 아닌 양
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After having lost my parents early I became a
female entertainer- but I had a dream.

My dream was to recover my original social
status as a commoner and to become a great
merchant.

I entreated the governor to do me a favor: “As I
was born a commoner, please let me live as a
commoner, not a female enterta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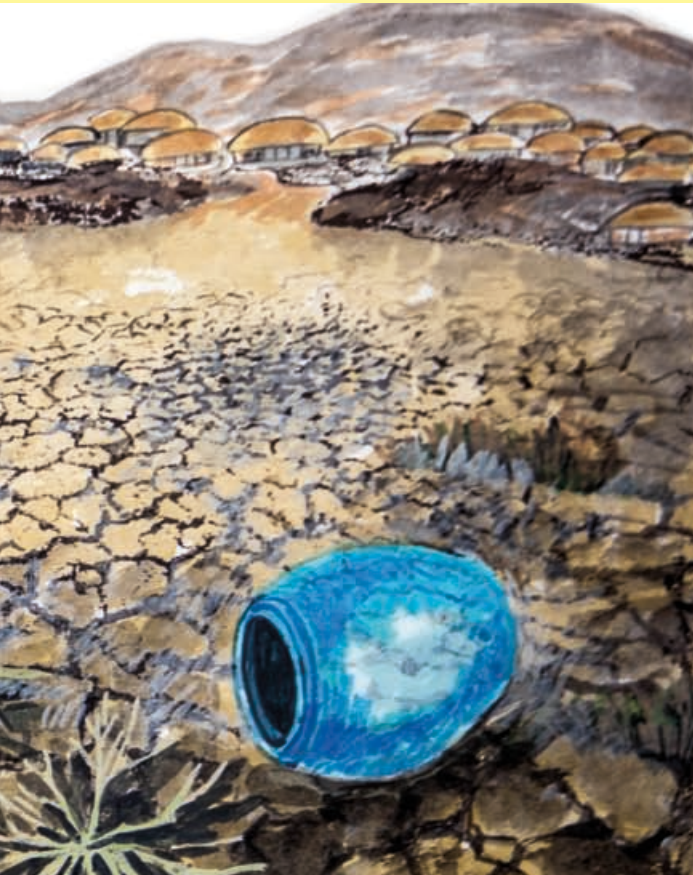
마침내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나는
객주를 차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섬의 물건과 육지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큰돈을 벌었지.

나는 유명한 상인이 되었단다.

Finally I regained my original position, and
started a business by setting up an inn for
peddlers.

I made a fortune by trading goods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I became a famous
merchant.





어느 해, 섬에 큰 흉년이 들었어.
나라에서 보내준 곡식마저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

One year, a severe famine struck the isl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ships that contained
government aid sank into the sea, leaving
people no choice but to starve.



나는 굶주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I couldn't turn a blind eye to those starving
people.





내가 번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여기 여러분을 위해 곡식을 마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섬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단다.

I bought up grains with my money, and called
people together: “Here I have grains for you;
please feel free to take as much as you need.”
Through my efforts, the people on the island
could survive the days of hardship.



섬 전체가 내 이야기로 가득해졌고,
그 소문은 한양의 임금님에게도 전해졌어.
‘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람을 살리네.’
“여봐라, 만덕을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해라.”

This story spread throughout the island- even
further to the king in Hanyang, the capital:
‘Man-duk, Man-duk, what a beautiful name.
How she helps neighbors and saves people with
her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Listen, call her over to the palace.”
commanded the king.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바다 건너 한양으로 올라갔어.
밝게 빛나는 북극성과 부드러운 바람이
길을 내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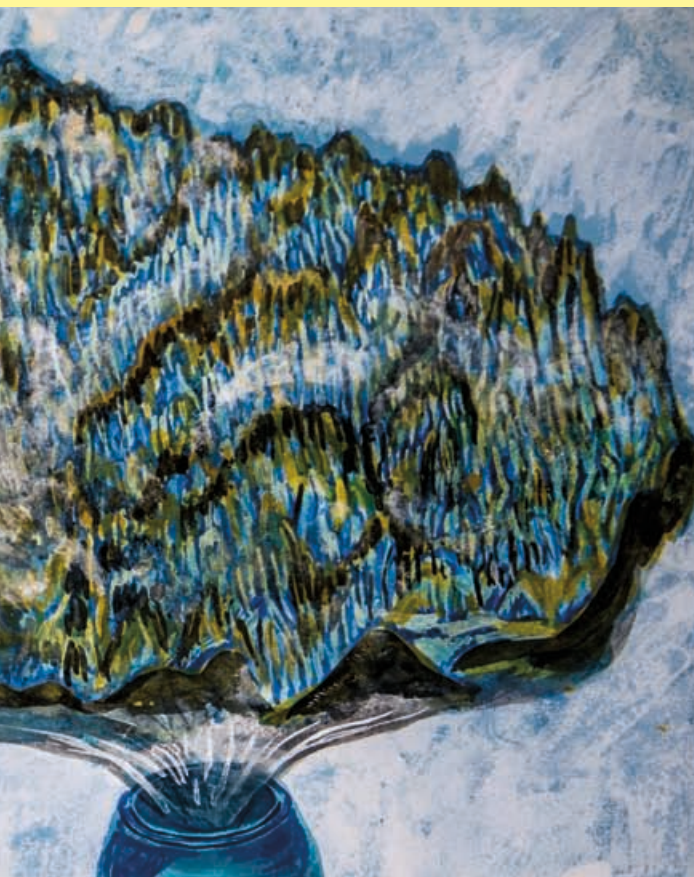
Upon his invitation, I crossed the sea and went
up to the capital.
The bright North Star and gentle breeze guided
me there.



궁궐에 도착한 나는
임금님을 향해 큰절을 올렸어.
임금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
“네 덕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으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
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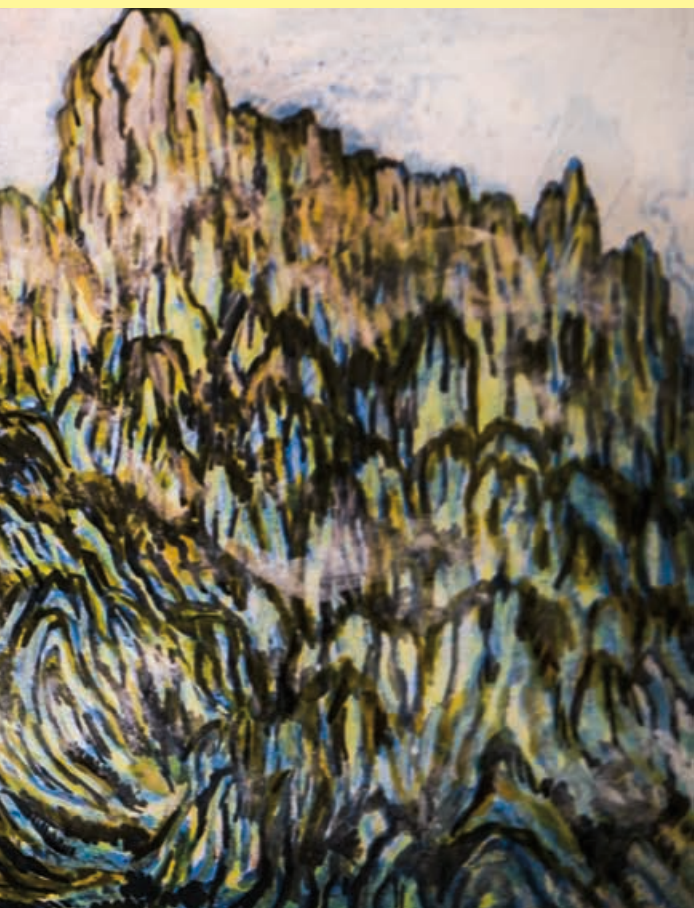
At the palace I bowed deeply before the king.
He smiled and said, “Since you have saved
such a great number of people’s lives, I will
grant you one wish. What is your wish?”





“제 소원은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내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곳이었어.
제주 섬에서는 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머나
먼 땅에 있었거든.

“My wish is to tour the Geumgangsan Mountain,
Your Majesty.”
the mountain was of my long -held yet distant
dreams.
it seemed impossibly far away from Jeju Island.



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어.
금강산 일만이천봉 산봉우리들이
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At last my wish came true.
The twelve thousand pinnacles the mountain
gazed upon me and sang songs for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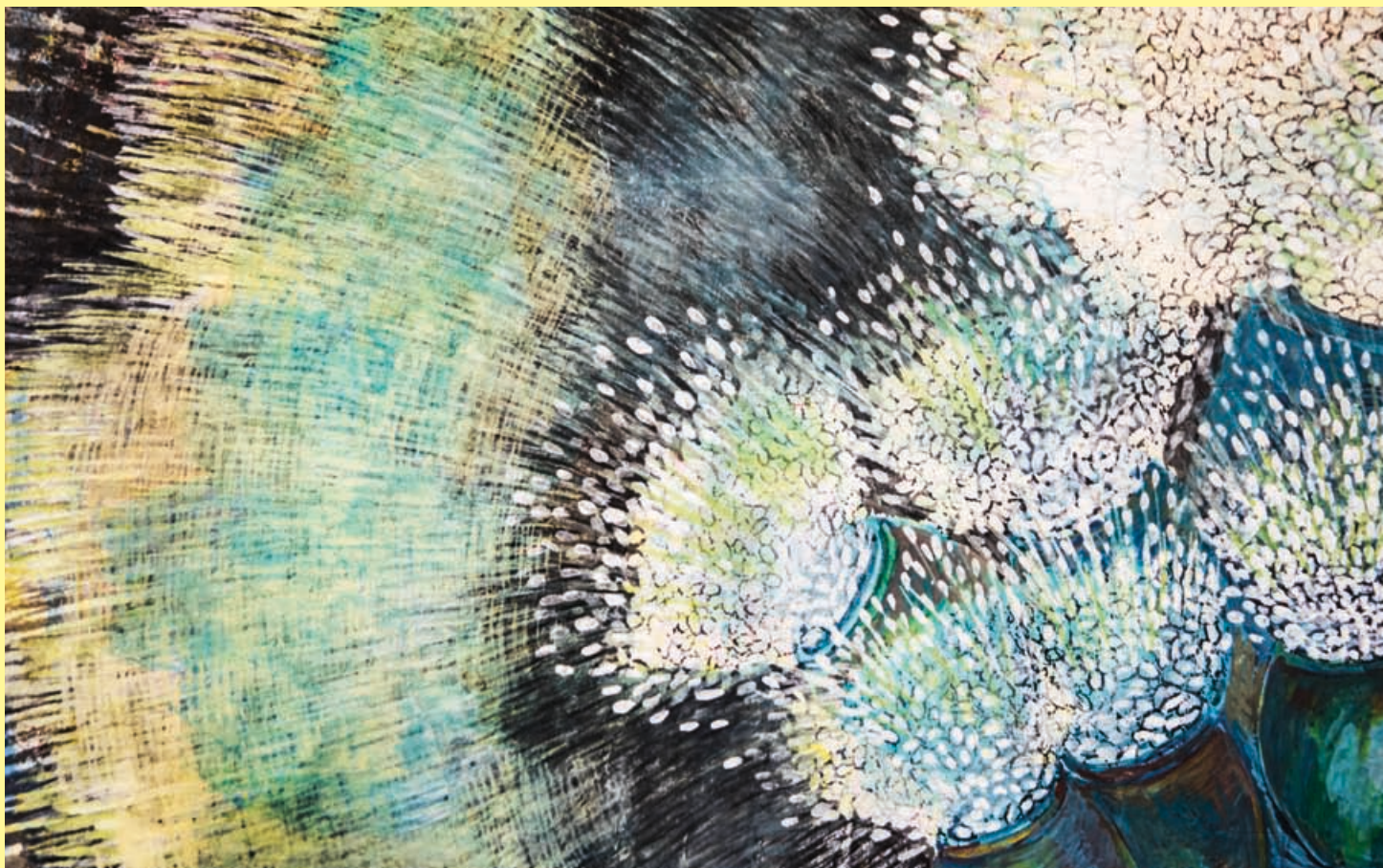
만덕, 만덕, 아름다운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람을 살리네.
만덕, 만덕, 제주섬에서 금강산까지
당당하게 꿈을 이루네.

Man-duk, Man-duk, what a beautiful name.
How she helps neighbors and saves people with
her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Man-duk, Man-duk, from Jeju Island all the way
to the Geumgangsan Mountain.
How she proudly made her dreams come true.



만덕, 만덕, 빛나는 그 이름.
생명을 살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리라.

Man-duk, Man-duk, what a shining name.
Her journey to save lives and live her dreams
shall continue.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Giving what we have.



너희들도 해 보지 않을까?

나, 만덕과 함께 말이야.

How about giving it a try?

Shall we?

김만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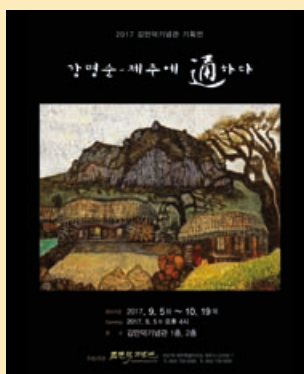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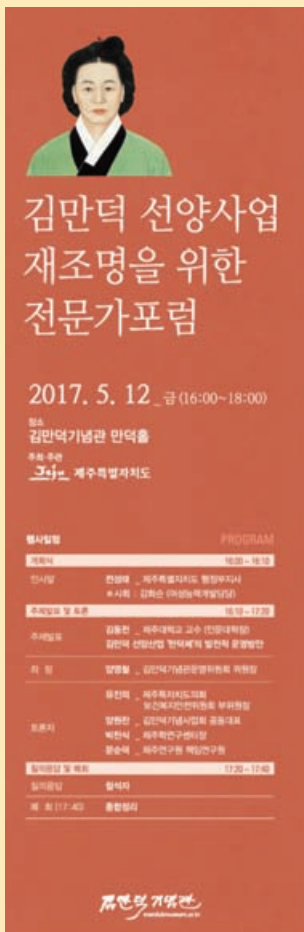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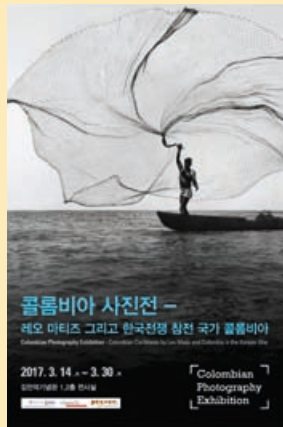
앞면 : 행수내의녀 김만덕 지묘

뒷면: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이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다.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양손 시체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영조 15년에 낳고 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어 가으니마루에 장사지냈고 1812년(순조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

(김만덕 자료총서1. 윤치부 327쪽 참조)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만덕할머니 손잡고 感谢感래”

—만덕 할머니, 제주 사람들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제주 시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학생들에게 김만덕에 대해 알리고 김만덕의 정신을 체험할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만덕할머니 손잡고 感谢感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잘 꾸며진 화단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조성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는 자연환경과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지만 규격화된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김만덕 할머니에게서 멘토링(mentoring)*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을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느끼고 체험해 보는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만덕할머니 손잡고 感恩술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한동초등학교, 애월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김만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을 전통 제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선생님의 연기와 구수한 말씀에 빠져들게 하는 구연동화, 미래로 이미지를 그려보는 샌드아트,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제주 떡을 만들어 나눠 먹기 등 다양한 오감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돌아가며 하고,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기에 왁자지껄하지만 점차 몰입하여 진지하게 김만덕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품안으로 빠져든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4월~12월까지 제주시외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1회 60명 이내)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해안초등학교(2017. 4. 26)	한라초등학교(2017. 6. 28)
애월초등학교(2017. 6. 28)	강정초등학교(2017. 7. 20)
구엄초등학교(2017. 9. 27)	토산초등학교(2017. 10. 25)
조천초등학교(2017. 11. 29)	

※멘토링(mentoring)이란 원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이다.



김만덕 역사 유적지 탐방, 문화 체험

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탐험대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의 지원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탐험대’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내 초등학생들은 김만덕기념관에서 영상과 전시된 유물을 통해 김만덕의 삶을 살펴보고, 나눔 체험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나눔을 실천하는지 알아보고 나눔 엽서도 만들었다. 조선시대 객주의 모습을 재현한 김만덕 객주에서는 제주음식인 몸국을 처음 먹어보기도 했다.

드디어 김만덕 할머니가 계신 사라봉 모충사에 도착, 온통 한자로 된 작은 묘비였는데 선생의 설명을 듣자 할머니의 묘비가 담고 있는 의미를 공감할 하였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한 알쏭달쏭 O×퀴즈, 정답을 맞춘 학생들의 환호성이 김만덕 묘탑에 가득했다.



우리는 김만덕 나눔문화 탐험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4.5)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11.2)
제주동초등학교(4.12/13)	구엄초등학교(11.10)
재릉초등학교(4.18)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대화지역아동센터(11.11)
남원초등학교(4.22)	표선초등학교(11.23)
하귀일초등학교(4.27)	동홍지역아동센터(11.25)
도리초등학교(5.30)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11.27)
사계초등학교(6.10)	용담동지역아동센터(11.28)
김녕초등학교(7.6)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교육

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나눔교실



‘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나눔교실’은 김만덕기념관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도내 경로당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념관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김만덕과 나눔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017년 3월 건입동 경로당을 시작으로 도내 3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부와 봉사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다른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도내 경로당어르신들에게 김만덕을 소개하며 그녀의 삶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돌아보고, 나눔웃놀이, 웃음제조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직접 인적나눔(웃음나눔, 포옹, 칭찬 등)을 실천하는등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건입동경로당(3.21)	일도1동 경로당(6.22)
신례1리 경로당(3.29)	무근성 경로당(7.4)
남원1리 경로당(4.3)	남원 LH아파트 경로당(7.5)
하원동경로당(4.7)	사라봉경로당(7.11)
철성경로당(4.17)	조수2리 경로당(7.14)
용흥동 경로당(4.20)	서광 경로당(7.20)
금산경로당(4.25)	산양리 경로당(7.25)
중문 대포동 경로당(5.18)	태흥2리 경로당(7.27)
화북주공4단지 경로당(6.25)	고내리 경로당(10.25)
신성마을 경로당(5.26)	대림리 경로당(10.27)
구중경로당(5.30)	신산경로당(11.3)
상창리 경로당(6.1)	종달리 경로당(11.8)
장머들경로당(6.7)	조천상동 경로당(11.15)
서광동리 경로당(6.15)	성화 경로당(11.22)
장머들경로당(6.8)	
서광동리 경로당(6.9)	
광령1리 경로당(6.13)	
서광서리 경로당(6.15)	
하귀2리 경로당(6.20)	



만덕봉사단

봉사로 얻는 보람



만덕봉사단은 2016년 3월에 발족하였으며,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주도내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발족 첫째 청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내일로' 총학생회와 '군세녀' 총여학생회가 애서원, 인효원, 제주케어하우스, 제광원, 제주도립요양원, 해안누리길 등을 찾아 어르신 돌보기와 주변 환경정비 등의 노력봉사를 해왔다.

올해는 무지개마을에서 제주대학교 '그대' 총여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삼광사 덕희봉사단 단원들도 함께 무지개마을 급식실의 대청소에 참여하기도 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자신을 내려놓고, 맘을 흘리며 봉사를 하다보면 베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봉사단 모집 및 추가 신청접수는 김만덕기념관(064-759-6095)문의하면 된다.



청소년나눔교실

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 - 만덕할머니 나눔이 뭐예요?



11월 28일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응원하고 나눔이 있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나눔교실-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만덕할머니 나눔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주의 나눔의 표상인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으며, 학생들과 함께 ‘김만덕’과 ‘나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포일엽서’를 만들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족, 친구, 선생님께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프로그램 (총32회 진행)	
김만덕나눔교실(1차)-은혜로운 빛을 나눠요(10월 7/14/15)	6회
김만덕나눔교실(2차)-가족끼리도 배려가 필요해! (10월 28/29/11월4/5)	7회
김만덕나눔교실(3차)-나눔은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11월 11/12/18/19)	8회
김만덕나눔교실(4차)-빠빠로로 나눔하기(11월 8/9/10)	3회
김만덕나눔교실(5차)-만덕할머니와 오메기떡!나눔(11월 23/24)	4회
김만덕나눔교실(6차)-나눔이 싹트는 우리집(11월 25/26)	4회



청소년나눔교실

신(新) 김만덕객주 시즌2



12월 2일 중앙여중 학생들과 ‘신(新) 김만덕객주 시즌2’ 4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신(新) 김만덕객주 시즌2’는 학생들이 김만덕기념관 관람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 개척, 리더십, 경영원칙을 배워보고 자신이 김만덕이 되어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팔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동문재래시장의 협조를 얻어 모듈별로 시장에서 제주특산물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다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팔아보며, 그 홍보활동을 보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입 물품은 청소년들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



김만덕 나눔교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김만덕 나눔교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10월~11월 주중/주말동안 제주도내 어린이가족(175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족이 함께하는 김만덕 나눔교실(이하 가족나눔교실)”을 진행 하였다.

가족나눔교실은 기념관 관람 및 교육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찾고 가정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만덕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나

눔교실은 “따뜻한마음나누기, 가족간 배려하기, 말로 전하는 내 마음 등” 가족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조명만들기/포토월만들기/오메기떡만들기 등)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7 김만덕기념관 초대전

은혜의 빛- 양상철. 이영미. 한태상



김만덕기념관은 12월 20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은혜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였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의미에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헤이리예술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미, 한태상 작가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철 작가가 함께 하였다.

작가마다 독특한 재료를 활용한 질감으로 표현된 작품세계는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점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김만덕의 도전정신을 되새기게 해준다.

도전 속의 조화로움, 나눔 속의 화합을 느낄 수 있는총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 오프닝은 12월 20일 김만덕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양상철, 이영미, 한태상 참여작가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전시

의 개막을 축하했다. 장정언 전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의원,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장, 이승택 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명희 만덕로타리클럽회장, 박선영 국제소롭티미스트제주클럽회장, 이은정 KAYA대표, 박정해 공생원 원장, 유춘기 위원장, 강명순 연갤러리관장, 김광우 KIS대외협력이사, 윤두호 동부복지관장등이 함께 자리해주었다.

헤이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영미, 한태상 작가는 이번 전시 작품을 준비하면서 김만덕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 조화로움과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양상철

녹조근정훈장.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상. 현.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
한국서가협회. 라 메르 에 릴 회원
양성필용합서예술연구소

은혜의 꽃으로 피는 꽃 60x60cm / - Mixed media on plywood



이영미

개인전 29회. 아트페어 8회.
단체전 300여회
공공미술(폐광촌 벽화작업/할아텍)
저서: 영미생각에 겹다. 아트엔 아트 문예기행
이영미그림스튜디오

다시 부르는 노래 120x120cm / - 혼합 재료



한태상

개인전 18회
단체전 300여 회
2014 원곡 서예상
2016 미술세계 작가상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자. 모음 Sries 16_08_07

Mixed media on canvas / 72.5x50x4EA / 2015



2017 김만덕기념관 초대전

그리움-제주展



2017년 4월 4일 - 4월 30일까지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출신 작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함께하는 그리움-제주展을 개최하였다.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다양한 기억과 위안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제주'에 대한 애뜻함과 어릴 적부터 사랑해 온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희망에 대한 그리움, 씩씩함에 대한 그리움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참여 작가 26명의 40여 점의 다양한 예술 작품부터 사진, 판화, 콜라주 형태의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업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이 전시회는 한라미술인협회 김순겸 회장,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부 강민석 회장과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한 26명의 작가의 그리움-제주 기획전시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그리움-제주展 참여 작가

강민석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

강법선 월간 난과 생활, 월간 다도 발행인, 한라미술인협회

강승희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판화과 교수

강주현 홍익대학교 조소과,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한라미술인협회 사무국장, 제주조각가협회 회원

고보형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부회장, 신미술회, 서울아카데미, 제주도 미술대전초대작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제주문화원출강.

고봉수 Academy of Art University 졸. 홍익대 대학원 박사. Google (Mountain View. USA) 초대전 및 개인전

김남숙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제주도미술협회, 제주조각가협회, 제



주도예가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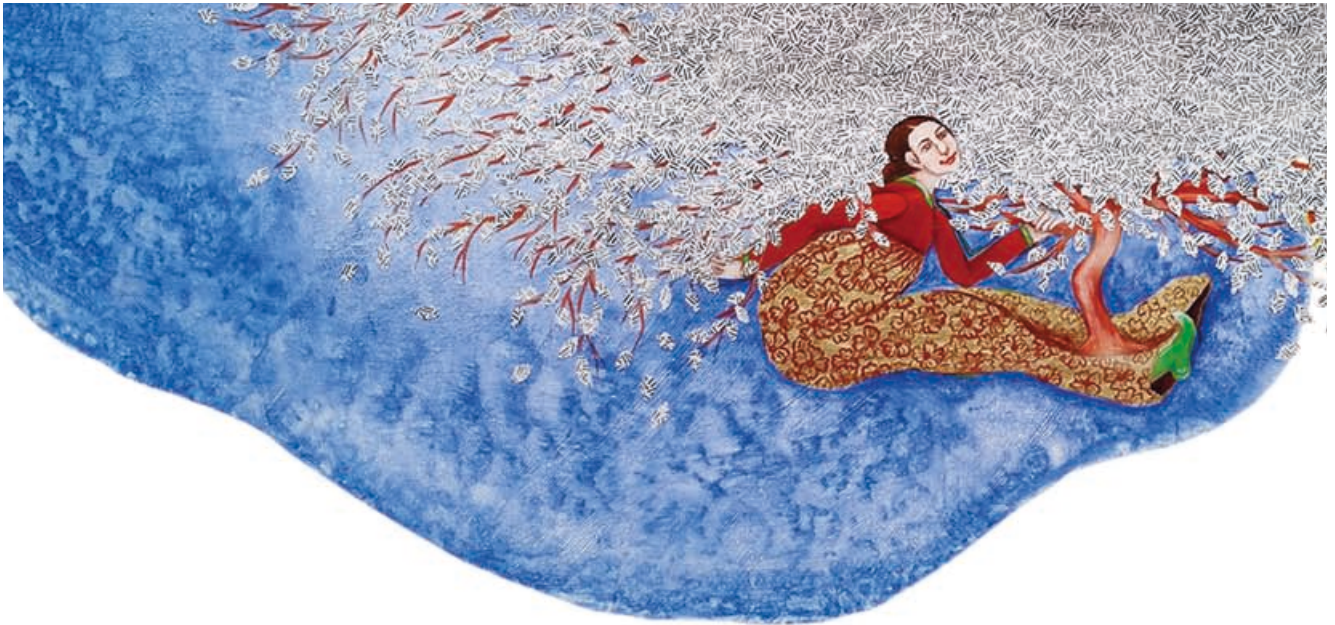
김소라 2016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를 비추다(현대미술관)
김수현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예가회, 도운회, 일배움터 강사, 아라도예대표.
김겸(김순겸) 한라미술인협회 회장
김영자 김해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문창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강사
성창학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유리조형작가회, 제주미협, 제주조각가협회 회원
송창훈 제주조각가협회, 한국미협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양정화 한국미협, 한라미술인협회, AAA협회 회원
오옥자 제주도예가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 한국미술협회, 제주가톨릭미술가 회원. 수(CRAFT)
오창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

부교수

이승수 대한민국 신진작가상 수상 초대전 외 다수
이연정 2013-2016 제주미술대전우수상 2회, 2015 서울국제미술협회 도쿄 국제 공모전 우수상
장여진 제주대학교 예술학부강사, 한국미술협회, 광화문아트포럼회원, 제주미술연구회,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제주특별자치도운영위원회역임.
정군태 한국미술협회, 한라미술인협, 후소회
채기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양화부문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정요택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디자인회사 디몽 대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제주디자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최정수 경기창작센터 PROJECT RESIDENCE 입주작가
최창훈 제주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회공모 당선
현덕식 섬-여백전회원,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원



개관 2주년 기획전시 이하운 작가 초대전



米^미感^감을 느끼다 섬 / 섬 / 옥 / 수

김만덕기념관 개관2주년 기념 ‘아름다움-섬섬옥수’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하였다.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이하운 작가의 ‘섬’ 섬 ‘옥’ ‘수’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굶주리는 제주도민을 위하여 쌀(‘섬’)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김만덕의 따뜻한 손길(‘옥’ ‘수’)을 기리는 주제로 퍼포먼스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현대미술로 표현하였다..

기념행사장에서 펼쳐진 이하운 작가의 퍼포먼스는 김만덕이 여성의 한계와 일찍 부모를 여읜 소녀 만덕이 극한의 환경을 벗어나 거상이 되어 생명의 쌀을 나누는 과정을 온몸을 던져 풀어나갔다.

내외빈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진 퍼포먼스는 감성을 자극하는 전자 바이올린의 선율과 가슴 속에 내재한 한과 정을 신명하게 만드는 전통 북과 장구가 하모니를 이루고, 이하운 작가의 신들린듯한 몸짓은 관객을 몰입하고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전춘자 김만덕수상자회 회장은 “쌀 세례를 받을 때 평생 처음 느끼는 감동과 치유를 받았다.”며 작가와 포

옹했다. 퍼포먼스에 사용한 쌀은 작가의 치마폭에 모아, 긴 줄을 이룬 관객들에게 김만덕이 주는 사랑의 쌀을 전했다. 쌀을 써서 성찰과 치유 그리고 나눔의 본질을 이끌어낸 이하운 작가의 예술세계와 김만덕기념관에서의 퍼포먼스와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공감했다.





희로애락 Experiencing Triumphs and Disasters

이하윤의 작품은 가장 기초적 양식인 밥한술을 통하여 인간적인 삶의 처절한 측면과 생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잃고 얻고, 인내하고,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가치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작품에 표현해온 작가 이하윤이 김만덕기념관에서 전시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하윤, 상반되는 가치들의 조우와 충돌에서 발체. (이경모 미술평론가/예술학박사)

한국적 문화유산에 깊이 영향을 받은 이하윤의 개인전이 열리는 한국 제주도 김만덕기념관은 특별하고 적절한 장소이다. 이하윤의 특이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론 은유적이면서도 때론 현실적인 관점은 쌀을 우리의 가속화되고 있는 경솔함과 파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경건하고 정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하윤, 쌀의 유토피아’에서 발체. Lilly Wei(예술 평론가/뉴욕)



이하윤 작가

‘어머니가 남겨 놓으신 따뜻한 한 공기의 밥은 사랑’이라는 정서를 체험한 세대인 이하윤 작가는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1989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미국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미술대학교 수석졸업과 동 대학원원을 수석입학하였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이하윤 작가는 60년대 유년시절을 상기하면서 쌀이 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과 관심으로 쌀에 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주식이자 경제와 정치, 사회적 모티브를 만들어내는 한민족의 얼과 철학적 담론, 나아가 쌀이 갖는 역사적 상징적 때문에 8년 전부터 작품의 주요 오브제를 활용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개관 2주년 기념식 및 공연

존경과 사랑이 넘친 김만덕기념관



5월 30일(화) 오후 4시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가수 양정원씨의 노래 '만덕할망 정신 살려삼주'로 시작해 개관 2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내빈의 격려사와 감사인사, 김만덕 사랑의 쌀 기증, 이하운 작가의 퍼포먼스, 뚜럼브라더스와 조

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임피제신부기념사업회에서 쌀 500kg, 한정효 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백만원, 제주패스 윤희준사장이 백만원을 개관 2주년을 축하하며 기념관에 기부하였다.



그동안 기념관에서 기부받은 나눔쌀 1톤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노숙인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에 지원되었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 관장은“ 개관 이래 2년여 동안 우리가 본받아 실천해야 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념관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가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를 통해서 의인 김만덕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제주도민에게 사랑 받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2주년 기념 인사를 했다.

기념관 1층 홀에서 이루어진 기념식과 공연은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과 퍼포먼스로, 제주민을 사랑으로 살린 김만덕에 대한 존경

과 감사를 표현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합창단 어린이들은 합장과 연주로 김만덕의 정신이 미래로 이어나가는 상징이 되어 행사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개관 2주년 행사

제주에서 만나는 먼나라, 이웃나라 바자회



제주에서 만나는 먼나라, 이웃나라 바자회가 5월 30일-6월 4일에 기념관 1층에서 있었다. 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K.A.Y.A, 대표 이은정)가 지원하여 개관 2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은정 대표가 수집한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인도네시아, 케냐, 네팔, 인도 등의 특색 있는 공예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지선 박사의 나눔특강

삶은 선물입니다 - “지선아 사랑해”

2월 4일(토)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이지선 박사를 초청해 ‘삶은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눔특강을 가졌다.

이지선 박사는 베스트셀러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로 현재 국제푸른나무, 푸르메재단, 한림화상재단 홍보대사 등 국내외에서 장애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동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로 아동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00년 한 여대생이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계기와 고통을 극복하여 해외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나갔다.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 간 자신이지만 생명을 구해준 데는 큰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끊임없이 아끼고 간호를 해준 어머니의 헌신과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은 돌봐주는 가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유학 중에 뉴욕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며 한 발 한발을 내딛을 때 고통에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으며 누구도 그만 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 말고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가자고 하였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온 이지선 박사의 이야기는 참석한 제주의 젊은이들과 도민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질 희망을 선물하였다.



16년 전 사고 후 병원에서 품게 된 작은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던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바꿀 큰 일이 아니라, 내 작은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했던 말에, 내가 쓴 글에 반응을 해주었던 고마운 이들에게 늘 반가운 소식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졸업식, 'commencement' 또 다른 시작인 그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척 하고 싶은, 이기적이 되고 싶은 순간에도 이 감사를 기억하며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출처] 졸업 그리고 광야 | 작성자 ezsun



고현주 작가 제주북콘서트

꿈꾸는 카메라 -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통



<꿈꾸는 카메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통 사진작가 고현주가 5년 여에 걸쳐 소년원의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수업 이야기이다.

토닥토닥

나는 '치료'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긴 한데, 치료라는 말은 대상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느낌이 있고,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라서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 내가 좋아하는 의태어는 '토닥토닥'.

필요한 건 용기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진지하게 사진공부를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쓰고 선생님들이 도와달라는 부탁 편지였다. 무얼해줄 수 있을까? 이 친구들에게 무얼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뜨끔했고, 두려웠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무엇이 아이들을 이토록 거칠고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은 늘 불안해한다. 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헤맨다. 마음이 불안하니 눈동자도 흔들린다. 그들은 외롭다.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르지 않다, 다르게 볼 뿐

어른들이 이 친구들을 자세히, 오래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눈빛이 고요해지고, 그들의 미소가 환해져온다. 마음을 열면 열리게 되어 있으므로... 단지 우리 어른들이 잘 못 볼 뿐이다.

꿈꾸는 카메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통 고현주 지음, 혼들의자에서

6월 9일(금) 오후 6시 30분,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2017년 나눔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고현주 작가의 북콘서트 <꿈꾸는 카메라>가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송정희 제주위클리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북콘서트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 광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그리고 특별손님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고현주 작가와 함께 책 속에 담긴 작가와 소년원 아이들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청중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첼리스트 문지윤, 바리톤 김동연, 김민웅, 박재동 교수(백발소년단)의 축하 공연도 북콘서트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성이시돌 호스피스병원 후원 및 평전발간 기념식

제주한림이시돌 맥그린치(임피제) 신부



2월 18일(토) 오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린 성이시돌 호스피스 병원 후원 및 임피제 신부 평전 발간 기념식'을 맞이해 김만덕기념관과 임피제신부기념사업회(상임대표 박승준)가 김만덕과 임피제 신부의 헌신과 나눔정신의 계승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피제신부기념사업회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일군 기적과도 같은 사업들과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기념사업과 성이시돌 복지의원 호스피스 병동 후원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푸른 눈의 돼지 신부’로 불리는 맥그린치 신부(89. 한국명 임피제)는 1954년 25세에 제주도 한림성당에 부임했다. 제주 4.3과 한국전쟁으로 궁핍한 제주의 극심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농목축, 의료 및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 1960년 요크셔 돼지 한 마리를 한림에 가져와 키운 것이 연간 돼지 3만 마리, 양과 소, 말을 사육하는 아시아 최대 양돈목장으로 성장했다.

한림수직, 성이시돌 병원, 양로원, 요양원,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지역민의 경제적인 자립과 삶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 63년 간 제주에서 선한 목자로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을 온전히 바쳤다.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

피스 시설을 설립하였다. 기념식에서 임피제 신부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졌다.

맥그린치 평전의 저자인 양영철 교수와 참석한 이들 모두는 임피제 신부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기를 바랐다.



김만덕기념관 관련 동정

김만덕 선양사업 전문가 포럼

‘김만덕 선양사업 재조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5월 12일 오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한 김동전 교수(제주대 사학과)는 현재 탐라문화제의 일환으로 봉행되고 있는 ‘만덕제’를 김만덕 별세일인 음력 10월 22일이나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 등 별도의 날짜를 정해 독립적으로 봉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김만덕상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시상하는데 글로벌화하여 수상 대상을 국내외의 남여성·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현행 봉사·경제인 부문에 세계적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특별상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만덕상을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시상한다면, 김만덕의 국제적인 선양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이나 파리의 샤를르드골공항’ 등과 같이 제주 제2공항의 명칭을 김만덕(제주)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장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발전

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김만덕상 제정위원회’를 설치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김만덕상을 세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으로 위상을 격상해 세계 여성의 노벨상으로 만들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리고 계승·발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만덕제와 김만덕상, 그리고 김만덕 선양사업 전반에 새로운 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김만덕기념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혜성 박사 초청 세미나



지난 3월 15일(수), 서울에서 전혜성박사 초청 세미나 '김만덕 기념사업 세계화 및 활성화 전략'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혜성 박사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 양원찬 공동대표를 비롯한 기념사업회 임원들과 마케팅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 기념사업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만덕정신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한국의 이미지와 김만덕 세계화 이미지가 동일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김만덕 이미지 향상을 통한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 ▷김만덕장학금을 신설하여 연구진을 양성해 이를 통한 국내외 젊은 여성 리더들이 김만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외 학회를 통해 발표하거나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공론화 추진

▷제주도에서 저명한 국제회의 유치시 김만덕, 해녀, 장수섬을 부각시켜 국제적인 무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김만덕기념관을 해외여행객이 찾는 명소화 ▷김만덕이 당시의 시대적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국제적인 교육자료로 활용

▷역대 김만덕수상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수상경력, 이력 등을 범주화하여 정리하고 기념관에 게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사회공헌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그 정신을 기리도록 할 것 등 김만덕 기념사업을 폭넓게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김만덕기념관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2월 6일(월) 김만덕기념관 2017년 1차 운영위원회가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 민속역사, 김만덕연구선양, 예술문화교육, 사회복지,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강영민, 양원찬, 문영자, 양홍재, 강명순, 양영철, 송윤규, 양종렬, 송형록, 진금옥, 강은희, 오영희, 박은희 등 13명의 위촉직 위원과 도 보건복지여성국 양시연국장과 김만덕기념관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촉이 되었다. 운영위원장에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 부위원장에는 연갤러리 강명순 관장이 선출되었다.

제19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김만덕 '의인상' 수상



사단법인 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명예회장 정근모)가 주최한 4월 21일 과학의날 기념 '제19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의인 김만덕에게 특별상인 '의인상'이 시상됐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 김상훈 관장이 참석해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

장영실과 김만덕은 특히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의 백성을 위한 큰일을 이루어낸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세종과 정조의 개혁정치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만덕과 장영실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펼쳐갈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은 사단법인 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가 1999년 장영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República de Colombia

한국전쟁 참전국 콜롬비아 레오마티즈 사진전

3월 14일(화) 김만덕기념관과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레오마티즈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레오 마티즈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국가 콜롬비아’ 사진전 오픈 행사를 하였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의 띠또사울빠니아빠니아 대사와 프레디 코이 무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장정언 전 도의회 의장, 김종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하연순 금곡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성규 제주관광대학교 총장, 김준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 회장, 박승준 임피제신부기념사업회 회장, 양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현정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정명희 만덕로타리클럽 회장등 100여명이 참석해 뜻 깊은 전시의 개막을 축하했다.

콜롬비아의 사진 거장 ‘레오 마티즈’의 작품과 한국전 참전 당시 콜롬비아 군의 기록사진을 만난 이번 전시는 3월 30일까지 김만덕기념관 1,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레오 마티즈(Leo Matiz 1917-1998)는 콜롬비아 문화의 심오함과 다양성을 사진으로 표현해 낸 20세기 최고의 사진가 중 한 명이며, 20세기 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작품을 남긴 최초의 사진 작가 중 한 명이다. 콜롬비아는 군인 약4천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 146명, 부상 448명, 69명이 실종된 피로 맺어진 우방국이다. 콜롬비아 카리브해 풍경 사진과 다채로운 활동 사진, 당시 전쟁기록사진이 전시되었다.



Colombian Photography Exhibition

Colombian Caribbean by Leo Matiz & Colombia in the Korean War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

성평등을 실천하는 한마음 축제



7월 1일 오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을 실천하는 한마음 축제-양성평등이 뭐마썬? 남녀가 온전히 지겨진 거우다' 기념식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방송인이자 여성학자인 오한숙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 도지사와 함께 양성평등 특! 특! 특!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현숙, 이동훈씨가 패널로 참석해 관객들과 함께 일과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성평등 부부상, 제라한 여성상,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등 도내에서 양성평등에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만덕기념관은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메인 공간으로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성 예술가 24명이 참여한 살림하는 붓질2 집:짓다' 전시가 이어지고, 7월 7일에는 전시 작가와의 만남', 제18회 제주여성영화제' 찾아가는 여성영화 프로그램으로 오후 6시 만덕홀에서 단편영화 옆집에는 왕이 산다' 상영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제주아바들의 우당우당 육아토크! 제주 남자를 말하다'가 진행되었다.

2017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강명순-제주에 통하다



김만덕기념관 기획전『강명순-제주에 통(通)하다』 전시 오프닝이 9월 5일(화) 오후 4시 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층 전시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오프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사진과, 장정언 전도의회 의장, 홍명표 언론인클럽 회장, 김봉오 제주문화원장, 오무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박규현, 고태민, 이선화, 김광수, 이상봉의원장이 함께 했고, 송윤규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 회장, 김세원 제주지방기상청장, 석진우 법화사 주지스님, 김성환 미협 제주도지회 전지회장, 양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강만보 사진작가, 현정자 제주도재향군인회 여성회장등이 함께 자리해주었다.

연화와 제주 초가, 돌담, 한라산, 유채꽃, 바다비경을 주제로 해 잊혀져가는 제주의 풍광을 담은 강명순 작가의 작품들로 꾸며진 이번 기획전은 9월 5일(화)~10월 19일(목)까지 기념관 1,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강명순 작가는 기존의 틀과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탁나무, 한지 같은 동양적인 재료와 서양식 유화 물감을 더해 이질적이면서 묘한 조화로움으로 풍경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개성을 표출하는 작업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20년 동안 연화를 화폭에 그려온 작가의 연화 작품뿐만 아니라, 제주 초가의 원형과 돌담, 한라산, 유채꽃, 바다비경을 주제로 하여 잊혀져가는 제주의 풍광을 담은 작품들로 꾸며졌다.

제주도만이 가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로 평가를 받았다.

2017 김만덕 주간행사

제2회 김만덕 나눔 큰잔치



2017 김만덕주간을 맞이해 10월 22일에 개최한 제38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과 제2회 김만덕 나눔 큰잔치'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만덕제는 매년 탐라문화제 개막일에 봉행되어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 개최되었다.

만덕제에 이어 산지천 김만덕기념관 앞길에 김만덕 당시의 장터를 재연해 모두가 함께 즐기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 김만덕 나눔 큰 잔치'에서는 삼광사 덕희봉사회에서 준비한 1,000명분의 국수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동이 나고, 여러 체험부스에서 준비한 2,000개가 넘는 선물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었다. 참가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두둑한 선물도 받아가는 말 그대로 모두 행복한 나눔의 큰 잔치였다.

28일까지 김만덕 주간행사로 만덕영화관, 기념관투어, 소장유물전, 나눔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제 2회 김만덕 나눔 큰잔치’는 김만덕 당시의 장터를 재연해 도민참여 체험프로그램(염색·보부상·요리체험·만덕할망콜라주 등)과 음식 나눔(국수·떡·차·주먹밥·수육 등), 물품 나눔(천연비누·미용팩·에코백 등), 사랑의 쌀 나눔 등 나눔행사와 자선바자,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12시부터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공식개막행사는 특히 ‘함께한대’와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자전거사업단 네트워크’에서 기증한 자전거 86대에 김만덕 사랑의 쌀을 싣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봉사단 발대식’이 있었다.

‘김만덕 나눔 큰잔치’는 항상 김만덕기념관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행사이다.





禧

마음이 즐거운 희





체험 부스







문화 공연



자원봉사



2017 김만덕 주간행사

나눔 토크콘서트 - 장은아. 뚜렘브라더스



10월 25일, 7080 포크가수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등 대표곡들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장은아 씨와 제주어 지킴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뚜렘브라더스의 나눔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 하는 '나눔 토크콘서트'가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개최되었다. 출연진이 생각하는 나눔과 베풀 이야기와 감미로운 노래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저녁이었다. 이 나눔 콘서트는 KCTV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감동을 나눴다.



나눔 콘서트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을 위한 2017 김만덕 나눔 콘서트



김만덕 나눔콘서트는 베트남에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변푸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준비된 행사이다.

이번 공연은 현)한양대학교 음악대학명예특훈교수이자 한음 Trombone Ensemble 리더 겸 음악감독인 '트럼본-유전식', 현)한양대학교 음악교수 '소프라노-박정원', 탈리아비니 콩쿨 등 30여개의 국내외 콩쿨입상자인 '소프라노-유성녀', 오페라 <리콜레토> <가면무도회> 등의 주역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김동원', 오페라 <피카로의결혼> <미

술피리> <리콜레토> <라보엠> 등의 주역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김철준'의 다채로운 솔로무대가 감동을 선사했다.

제주의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재능봉사단체 '소리풍경합창단'은 협연으로 참여하여 멋진 울동과 합창을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오페라와 뮤지컬 넘버는 물론 김광수의 '엄마야 누나야', '산고산 타령', '청산에 살리라' 등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 모두가 함께 하나되어 따뜻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다.



트롬본 유 전 식



소프라노 박 정 원



소프라노 유 성 녀



바리톤 김 동 원



베이스 김 철 준









제2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시상식



12월 20일(수) <2017 제2회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나눔/봉사/희생과 관련된 사진공모전으로 진행된 2017 제2회 만덕문화대상 시상식은 일반부 대상-부성현, 학생부 대상-곽민서를 비롯해 16명의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당선작은 김만덕기념관 1층에서 전시되었다.



일반부 대상 - 발 맛사지 부성현



학생부 대상 곽민서(구지초 1년)

나눔 특강

거꾸로 선 나무 - 배우 방중현



12월 20일(수) <거꾸로 선 나무>를 주제로 한 배우 방중현의 나눔특강이 개최되었다.

특강에 나선 방중현씨는 자신의 삶을 '거꾸로 선 나무'에 비유해 표현하며 끊임 없는 도전과 주체적으로 가꿔온 배우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건강한 삶의 뿌리가 되는 행복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덕할머니와 같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일궈내는 그의 삶을 엿보며 그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지탱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듯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이 닥칠때마다 지탱해줄 수 있는 양분을 주는 뿌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



함께 나눠요 만덕사랑!

나눔 천사 송연희



송연희는 초등학교 3학년, 나눔실천 경력이 10년이다. 부모님께서 연희가 태어나자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기부계좌를 개설했고, 초등학교 입학 때는 아프리카 남자친구 '모아비'에게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용돈으로 30만 원씩을 학비를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인 연희는 할머니 전귀연님의 유전자를 닮은듯하다.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절약과 나눔이 몸에서 배어난다. 1년 동안 용돈을 모아 쌀을 사서 두 번째 기부를 했다.

부모님 참관수업에 참석한 어머니 김성미 씨는 연이가 수업시간에 분주하게 오가는 산만한 모습을 보여 깜짝 놀랐다고 했다. 선생님 면담에서 학습지체 장애우를 위해 일찍 과제를 마친 연아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하기도 했단다. 김만덕 스토리북에 대한 독후감과 시에서도 실제로 나눔을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나눔에 대한 이해가 연희의 시와 글에서 느껴졌다.

연희가 할머니에게 맡긴 용돈을 대학에 들어가 배낭여행을 갈 때 쓸 수 있도록 따로 모았는데 제법 많이 쌓였다고 한다. 만덕과 같이 넓은 세상에 대해 꿈을 꾸고 펼쳐나가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할머니, 어머니, 연아 3대와 기념관에서의 좋은 만남이었다.

송죽원 20일간의 행복



블루베리는 갈산이 상당량 들어 있어서 신경보호제로 알려져 있고 암이나 노화 방지에도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블루베리가 1kg에 3만 원. 큰맘 먹고 5kg을 샀다. 잘 다듬어 상에 내려 50명이 나누니 각자에게 돌아가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송죽원 김금자 원장의 이야기이다. 독한 약보다는 자연의 음식을 통한 치유에 힘쓰는 김 원장은 지인으로 부터 3년 전 블루베리 묘목 30수를 분양받았는데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송죽원식구 50명에게는 7월이 되면 20일간의 행복이 찾아온다. 블루베리 수확 시기는 20일이기에 그렇다. 태어나자마자 유아시설에 맡겨지고 부모마저 이 세상을 떠나 홀로된 남규 씨(39세)와 평소에는 천사지만 성질나면 선생님 머리칼과 목을 잡고 흔들어대는 선정 씨이지만 동갑내기 남규 씨에게는 애교가 넘치는 절친한 친구다. 사회복지 법인인 한라원, 요양시설인 송죽원,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이기도 한 김금자 원장은 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중증장애우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있다. 가족마저 포기한 이들을 돌보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지만,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7월이면 직접 수확하며 나누는 재미에 행복하다고 한다. “장애인이란 해서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시설에 위탁해야 하지만 가정만큼 좋은 곳은 없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통

인데 더 넓은 환경을 꾸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16년 전부터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의 좋은 곳은 거의 다녔고, 일본 오사카, 타이완 등 외국 여행도 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연착시켜 경위서도 쓰고, 현지에 도착해서 여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언제 송~ 하고 가냐며 물어온다. 집에서는 사고뭉치가 여행을 가면 제법 식당 예절도 잘 지키는 순한 양으로 변한다.”며 대견해 했다.

김 원장은 이들과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은 유럽! 장거리 여행이기에 모두 같이 가지 못하겠지만 꼭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은 떨어진작업복이나 구멍 난 양말도 감사하지만, 원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만만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한다.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손가락질 마져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통장을 관리하고 정부지원금과 재활작업장 급여 등이 수천만 원씩 되지만 종종 부모나 형제가 찾아와 퇴원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부모를 만나 너무 좋아하며 따라나선 친구들은 거의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아직은 건강한 몸과 정신이 있는 자신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지 반성해 본다. 만덕과 같이 넓은 품을 가진 김금자 원장이 존경스럽다.

제주공생 무지개마을



여름휴가가 시작된 7월 말 토요일 김만덕 기념관 만덕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학생들과 제주도 월평동에 있는 제주공생 무지개마을을 찾았다. 제주공생의 모태는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공생원이다. 전쟁 고아를 거두는 보육원으로 원장이 직접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가 1951년에 실종되었다. 부인 윤학자님께서 공생원을 계속 유지하다 1968년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암으로 별세하였다. 두 분의 4남매는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회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막내인 윤영화 목사는 아내(박정혜 원장)와 3살 4살 자녀를 데리고 1987년 화북에서 희망원을 시작하여 30년을 맞이했다.

무지개마을은 2014년 제주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시설 이름 때문에 곤혹스러워 해서 직원들과 생활인들에게 공모하여 행복의 마을과 무지개마을이 나왔다고 한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뜻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무지개마을에서는 약물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치유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전에는 완치가 어려운 불치의 영역이던 조현병에 대한 인식을 바꿀 정도로 약 25%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박정혜 원장은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사고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병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고 주로 내성적인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귀신들렸다고 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긴 일반 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 치료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지개마을에 많은 분이 봉사오셔서 성인시설이라 분위기가 침체되기 쉬운데 봉사자들께서 활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고 두려워하시지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알리고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제주대 학생들은 만덕봉사단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흘린 땀만큼 보람도 크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2017년 사랑의 쌀 배분처&수량

수량(kg)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도)	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시)	6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귀포시)	600
제주광역푸드뱅크	306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100
이도이동주민센터	200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
도 보건복지여성국	1,000
성이시돌요양원,복지의원	5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1,500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	500
이도이동주민센터	300
일도일동주민센터	300
성이시돌요양원,복지의원	50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0,700
독거노인돕기	20
건입동 연합청년회	100
지체장애인협회 대정분회	600
조천읍사무소	200
지적장애인시설 뽕엘	300
건입동 주민센터	300
정효원	400
가톨릭사회복지회	700
이도이동주민센터	300
노형성당 빈첸시오회	500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	500
다문화가정 지원	110
일도일동주민센터	1,000
이도이동주민센터	1,000
순복음종합복지관	291
건입동주민센터	1,317
지역희망 박람회(서울 기부)	100
아름다운 제주 국제마라톤 나눔 기부	200
음식문화축제 나눔 기부	200
음식문화축제 나눔 기부	500
정효원	300
태고원	300
제주요양원	300
제주공생	500
천주교 제주교구 어르신대학	300
나눔큰잔치 떡 나눔	240
감귤마라톤 기부	200
대정읍 장애인협회	400
한림읍 독거노인	20
나눔큰잔치 나눔	518
나눔큰잔치 밥 나눔	60
푸드뱅크	1,000
중앙성당 2빈첸시오	300
방어축제 나눔 기부	50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600
노형동 정든마을 1,3단지경로당	600

2017 기탁현황

김만덕기념관 개관 2주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회나눔큰잔치 사랑의 쌀 2,000kg 및 자전거 86대 나눔



정효원/인효원/도립요양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태고원/다원노인복지센터



일도이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생명의샘



이도이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사랑의 쌀 배분처&수량

수량(kg)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삼광사 덕희봉사회



임피제신부기념사업회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정읍 장애인지원협의회



창암재활원 (만덕로타리클럽)



이도2동행정복지센터·사회보장협의체



지적장애인시설 벤엘	300
동문성당 사회복지위원회	300
소름티미스트 자선바자 나눔	200
삼광사 덕희봉사회	300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
떡 나눔(강순희)	60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400
광양성당 착한목자 빈첸시오회	300
기념관장 서울출장 사용	20
불교자비원	300
만덕로타리클럽 독거노인돕기	300
독거노인돕기	27
만덕로타리클럽 독거노인돕기	300
가정위탁지원센터	300
여성경제인협회 쌀나눔	400
독거노인돕기	6
정효원인효원보은의집, 제주도립요양원	60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300
만덕로타리클럽 독거노인돕기	7
서문성당 민첸시오회	300
태고원, 다원노인복지센터	300
일도2동장애인지원협의회	200
독거노인돕기	12
생명의 샘	200
독거노인돕기	20
독거노인돕기	10
독거노인돕기	300
이도이동주민센터	200
	100
이하윤 작가 전시행사 사용	10
	100
개관기념식 홍보용 사용	100
개관기념식 퍼포먼스 사용	60
공동모금회	1,000
제주신보_후원	200
송죽원	300
독거노인돕기	10
도 보건복지여성국	1,550
독거노인돕기	10
정효원·효사랑·미다요양원·세화요양원·재광원	1,000
임피제 신부 기념사업회	500
6.25참전유공자회	150
이도이동주민센터	3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
만덕로타리클럽	160
기타배분	40
독거노인돕기	30
경북포항지진피해 이재민 지원	1,000
삼광사	500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대정읍분회	500
제주도청(보건복지여성국)	1,000

총 합계 50,814kg

나누면 커지는 사랑 **감사합니다**

김만덕 8대손 김상백



새솔어린이집 원아



뉴제주라이온스클럽



한국지역난방공사



신화에릭(팬클럽)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JIBS 시크릿아일랜드 촬영팀



제주농협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송연희 학생 가족



김제농협제주사업소



국제와이즈맨 제주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사업단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만덕로타리클럽



한국방송통신 제주지역대 경영학과 재학생



김만덕기념관 방문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충주고등학교학생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3기



제일동포



베트남 국영방송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해김씨 종친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합천군의회



전국수석교사 연합회



경기도포천시의회



알쓸신잡팀(유시민작가/유희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충북제천시문화해설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만덕기념관에 성금을 주신 분

(주)명성ST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만덕기념관 직원	김이현	중앙연합회	문정아	보우 스킨케어
088-화학 4기	건입동마을협동조합	일동	김인혁	농협서귀포시지부	문정희	봉성교회
24회 만덕수상자	건입동마을회	김만덕상수상자회	김일환	농협은행 제주	문준호	부구옥
해전 (모덕사)	건입동주민	김명신	김재영	영업부 이창휴 부장	문춘자	부만근
CU 종합청사점	건입동행정복지센터	김명준	김재영 가족	농협제주본부 강덕재	문화강좌수강생 1기	부산동구회부산지
도화님	경제인협회 제주지회	김명화	김재영국어논술학원	농협제주지역본부	문희순	역 제주도민회
KCTV 제주방송	경주김씨종친회	김모네	김정순	농협중앙회 제주지	미드웨스트대학교	부영애
KEB하나은행제주	김부일	김미경	김정옥	역본부 고병기 본부장	박사과정 원우회	북초등학교
본부	경천흥업㈜	김민관	김정임	뉴제주라이온스클럽	민영현	산지경로당
K-water 제주	계정희	김병태	김제농협	다이너스티 민경준	민홍자	노인봉사단
사업단 김동규	고경민	김부일	김종범	대정노인대학	박규호	산지천축제위원회
YGLF 3기 사무총장	고기일	김석희 가족	김종훈 1921회	대정여고 5회 동창회	박기석	산지천축제참가자
문자원	고남하	김성욱	김종훈 베드로	대정초 53회 동창회	박길현	서강원
강경호	고성익	김성웅	김주영	대정편찬위원회 일동	박노균	서귀중앙여중 재학
강계자	고승은	김성원	김준휘	대한항공	박노균	생 일동
강기호	고승화	김세억	김지표	도 여협 고양순 회장	박노혁	서귀포문화대학 3기
강덕재	고영심	김소연 가족	김지후	도남동 주민	박동명	서귀포문화원
강두철	고영철	김소영	김창희	동광해운㈜	박두익	서귀포칠십리로터
강맹호	고예준	김수연	김철현	동양대학교	박상준	리클럽
강문수	고희열	김순림	김철호	이정화 교수	박선영 가족	서대문구의회 홍길
강미숙 가족	공항공사 제주본부	김순호	김태동	동원설비㈜	박연주	식 부의장
강미정	교효정	김순호 전 도의원	김태호	동초등학교 축구부	박연희	서대문구청
강민경	권혁태	김승중	김태환	학부모회	박용택	서순애
강서연	금영해운	김시원	김태희	라온레저개발	박윤학	서울성남고 26회
강석우	금영해운 정영자	김애자	김해김씨	레오 김훈범	박장서	일동
강성식	기민철	김양훈	좌정승공파종친회	렛츠런파크제주	박진양	서울지역 제주도민
강성우	기혜은	김영선	김해김씨	류병진	박충열	회 김창희 회장
강순자	김고은 가족	김영선 가족	중앙종친회 김동근	류현경	박희선	서형
강순희	김근배	김영철	부회장	만덕상수상자회	발로타	선미리
강승수	김남권	김영철 사장	김현진	만덕전설	배석한	세화해녀민속시장
강영수	김남규	김영철 원장	김형중	프로그램 참가자	백기승	고기언 회장
강영철	김남현	김예림	김휘람	만덕회	백기승 원장	세화해녀민속시장
강영필	김대원	김용학	김희경	명아원	백남신	변현철
강우준	김대호	김용현	김희철	목화로타리클럽	백정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강우현	김덕규	김우사 가족	나태동	무기명	무무공방 양주현	소비자교육중앙회
강원화	김도현	김우진	나태호	무무공방 양주현	벽진이씨평정공파	제주지부 한길순 감사
강찬식	김동규	김은미	노주현	문경미	종중	손유원
강창일의원	김동호	김은미 가족	노찬	문관영	변정일	송경철
임원진 일동	김두형	김은빈	노현규	문영찬	보우 가족	송년자선음악회 후
강한일	김만권	김이레	농촌지도자	문옥희	보우 손님들	원자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송시태	영천시의회	이선영	정광웅	제주은행 장재근 상	최정문	허기원
송연희 가족	오갑식	이선정	정대중	임감사	최지은	허능필
송유림	오경수	이선진	정서윤	제주일고 14회 동창회	최진자	허세진
송재이	오경하	이성준	정연규	제주일고 총동문회	코스메틱 고은빛	허영배
송진호	오라성 고성익 대표	이승범	정연우	장 현성우 및 동문	탐동사진반 양정호	허영호
송창우	오만석	이승섭	정옥순	일동	포도원 강경숙	허재노
송혁준	오송현	이영무	정운찬	제주지방기상청	피플라이프 김경미	허정분
송현철	오승익	이영애	정유진	제주콤 원창도	하인기	허태준
수눔음 아름다운동행	오승훈	이예분	정운태	제주테크노파크	하재의	현규호
수운교 청정봉사단	오예림	이용길 학장	정의동	제주특별자치도개	한가휘	현대자동차 김상백
송해수산	오철우	이재봉	정태민	발공사 오경수 사장	한국공항공사 제주	현성수
신도시로타리	오한근	이정부	정하승	제주특별자치도발	지역본부	현성욱
신동주	오해숙	이정순	정하진	전포럼	한국마사회 제주지	현세림
신동훈	와타나베	이천수	정현량	제주팔각회	역본부	현왕수
신봉주	요아킴	이현준 가족	정후선	제주패스 윤희준	한국방송통신대 제	현준
신용국	우선욱	이형철	제대박물관	제주한소리	주지역 경영학과 재	현창중
신현기	우영훈	인간교육시민연대	문혜경 관장	여성합창단	학생 일동	현화진
심규민	울산 일여동아리	인수한의원	제주4.3연구소	제주한소리여성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텔 레오
썬호텔 양미연 팀장	원불교 제주교구	일심선경개발	허영선 소장	창단 적십자봉사회	한국여성경제인협	홍경훈
아이사랑원더맘스	여성부	임봉준	제주관광공사	조영숙	회 제주지회	홍명표
아현성당	원희룡 도지사	임승복	제주국제협의회	조용일	양은정 회장	홍서표
안경훈	유니온아이앤씨	임정연	제주도민	조한휘	한국은행	홍성칠
안병열	육금순	피제신부기념사업회	제주라이온스 354	(주)디알엠씨티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순천
안수민	유정숙	임해준	부인회 현정자 회장	(주)성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홍영선
안지현	유정우	장기조	및 회원 일동	(주)의인	한라로타리클럽	홍주안
안진희	유주희	장상우	제주라이온스클럽	(주)이에스리조트	한라산 CC	홍창현
알파티엔엘	유한익	장순희	부인회	(주)인포마인드	한라일보	화곡본동성당
양상철	윤경중	장영지	제주문화관광	(주)제키스	리더스클럽 장태범	화룡각
양원찬	윤예송	장우인	해설사협회	(주)키프로	한소리여성합창단	황경연
양주현 가족	윤준석	장정규	제주미래행복포럼	(주)태건상사	한소리여성합창단	황사빈
양주희 가족	의귀리 김대현	장정빈	주사대부고	(주)한라산소주	봉사회	황용비
양태열 가족	이경선	재경오현고동문회	제주여동아리	차진광	한울희	
엠비모임	이경숙	오승훈 회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창작공동체 우리	한정윤	
여성경제인협회 제	이근실	재경일고28기 산악회	제주여성포럼	청도김씨 가족	한정희	
주지부	이남숙	재놀이배 어린이집	제주여중·고동문회	최갑열	한태희	
여우들	이대범	전귀연	이은희	최경자	함정호 가족	
연세글로벌리더쉽	이리노	전도상희	제주여중·고장학제	최동숙	합천군의회	
포럼 3기	이문두	전상호	단 이사 일동	최연순	해설사협회 4기	
연세대학교	이배용	전익주	제주올레파크 김정호	최원석 가족	서문희	
제주동문회	이상주	정경원	제주은행	최장민	향기램프테라피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입니다.

<http://www.mandukmuseum.or.kr/>

3층 상설전시실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였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도전-나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

2층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恩光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2호

제2호의 커버스토리는 김만덕과 정조입니다. 김만덕은 제주 섬의 양인의 딸로,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궁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양친을 모두 잃은 만덕과 정쟁으로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세자 이산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장하여 만덕은 제주와 조선의 거상이 되고, 이산은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두분은 인생의 정점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크게 바뀌고, 특히 제주는 근현대사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건릉에, 만덕은 한양이 바라보이는 가으니마루에 잠들었습니다. 사후 200여 년이나 지났지만 정조 능 행차 재현과 만덕제로 두 분은 우리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는 전국의 독자들에게 김만덕의 삶인 도전정신과 나눔정신을 널리 알리고 성숙한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선행 사례가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또는 <http://www.mandukmuseum.or.kr>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 올려 주시면 소식지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눔실천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김만덕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농협 301-0185-2939-3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恩光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펴 낸 곳 김만덕 기념관
펴 낸 이 관장 김상훈
교 정 최고운, 김옥선
진 행 객민, 김창현, 전학봉, 김세영, 김미영, 양수임
사 진 신익재, 양수임 외

제 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발 행 일 2017. 12. 27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전 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2016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2018 무술년 戊戌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만덕기념관 직원 및 소선과 어린이들

김만덕기념관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도전과 나눔의 김만덕 정신을 알리는
나눔문화전시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며
나눔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 임직원 일동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김만덕기념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